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0호 【루계 제23347호】 주체100(2011)년 1월 30일 (일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모범적인 학습강사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면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학습강사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가 김만유병원 과장 김춘월, 룡천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초급농근맹위원장 량성룡, 중앙은행 평안북도 향산지점 과장 차영빈, 대안구역 옥수중학교 교장 홍춘애, 원산사범대학 강좌장 김영기, 이천군당학교 강좌장 지윤길, 함흥철도국 수송지휘처 사령원 리남수, 성천군 라성교협동농장 당세포비서 황동식, 양덕군사회급양관리소 로동자 전춘화, 라선대흥무역회사 과장 오동면을 비롯한 학습강사들에게 전달되였다.

당의 초급선전일군된 영예를 안고 그들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성,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생활력, 생산과 건설에서 이룩된 성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자료등을 만들어가지고 강의를 잘하여 《우리 학습강사》로 불리우고있다.

그들은 정치실무적으로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고 당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 훌륭한 교양자로서의 본분을 다함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고 대혁신, 대비약창조에로 불러일으키는데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안은 학습강사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총공격전에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중국인사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탄생일에 즈음하여 중국 베이징국제우호련락회 리사가 선물을 올리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선물을 김효비 중국 베이징국제우호련락회 리사가 25일 지재룡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에게 전달하였다.

본사기자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에서 경축준비위원회 결성, 기념행사 진행

2.16경축준비위원회 결성식이 21일 로씨야 울라지보스또크에서 진행되였다.

로씨야련방공산주의청년동맹 연해변강위원회, 로씨야 원동지역 주체사상, 선군정치연구협회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위원장으로 로씨야련방공산주의청년동맹 연해변강위원회 1비서인 원동지역 주체사상, 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아나똘리 니꼴라예비치 돌가체브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

2.16경축 인디아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24일 뉴델리에서 진행되였다.

인디아의 정당, 단체들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인사들, 주체사상신봉자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위원장으로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인 전 외무상 피. 쉬브 샨카르가, 부위원장으로 조선통일지지 인디아위원회 위원장인 국회의원 케이. 에쓰. 라오가, 공동서기장들로 전인디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인 인디아공산당(맑스주의) 중앙위원회 위원 쑤니트 쵸프라와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리사장 하리쉬 굽따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전국적범위에서 집회, 업적토론회, 강연회, 영화감상회를 비롯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몽골에서는 연구토론회가, 로씨야에서는 영화감상회들이 19일과 20일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몽골 주체연구쎈터, 칭기스한대학, 로씨야대외친선 및 협조발전협회, 작가동맹, 쩬뜨르스뜨로이유한책임회사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들인 《당창건기념탑》, 《서해명승 구월산》이 상영되였다.

몽골 주체연구쎈터 집행위원장 츠. 바야르바뜨와 칭기스한대학 부학장 오. 쑤흐바따르는 조선이 자기식으로 발전하여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에 있다, 김일성주석께서와 **김정일**각하께서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시였기에 조선이 오늘과 같은 강국으로 될수 있었다고 격찬하였다.

로씨야대외친선 및 협조발전협회 위원장 쎄묘노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탄생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와 세계자주화위업실현을 담보하는 인류사적사변이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제패를 꿈꾸던 미제의 전략에 파렬구를 내시고 인류가 념원하는 자주적인 새 세계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본보기를 창조하시였다.

본사기자

《인민들속에서》(92) 출판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92)를 출판하였다.

도서에는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력과 숭고한 덕망을 보여주는 21건의 회상실기가 편집되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에는 우리 수령님처럼 인민의 어버이로 높이 칭송 받은 수령이 없었으며 우리 인민처럼 자기 수령의 뜨거운 사랑과 은정속에 살아온 인민도 없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선의 로동계급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천리마선구자의 영예를 떨쳐나가도록 이끌어주신 내용이 회상실기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는 앞으로 계속 천리마의 기세로 전진해나가야 하겠습니다〉》에 서술되여있다.

회상실기 《김철의 생산적앙양을 가져온 협의회》, 《락원의 전통을 잊지 않도록》은 북변의 철의 기지의 생산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를 열어주시였으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앞장에서 받들어온 투쟁전통을 계승해나가도록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을 전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의 실험실습설비들을 현대화하는데 많은 자금을 돌려주시고 군인들의 식생활을 풍성하게 하시려 바치신 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랑이 회상실기 《〈후대교육을 위하여 돈을 쓰는것은 아까울것이 없습니다〉》, 《우리 부대 부업포전에 찾아오시여》에 반영되여있다.

회상실기 《인민소비품에 대한 그이의 기준》, 《상훈사업에서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은 인민들이 쓰게 될 상품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며 근로자들속에서 발휘되는 자그마한 위훈도 빛내여주시려고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풍모를 보여주고있다.

창성땅을 여러차례 찾으시고 알곡증산의 비결도 틔워주시며 산골인민들의 소원을 풀어주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어버이수령님의 로고가 회상실기 《한편의 노래속에 어려오는 자애로운 모습》에, 민족의 존엄과 자랑이 깃든 국제친선전람관의 귀중한 선물들을 잘 보존관리하도록 가르쳐주신 내용이 회상실기 《묘향산에 단풍이 물들때면》에 담겨져있다.

도서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속에서 평범한 로동자의 딸이 우리 당이 아끼고 인민이 사랑하는 무용예술가로, 남반부출신의 문예인이 나라의 일군으로 성장한 이야기를 전하는 회상실기 《재능을 꽃피워준 어버이사랑》, 《삶의 보금자리에서》가 들어있다.

회상실기집 《인민들속에서》(92)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받들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령도따라 강성대국승리를 위해 힘차게 진군해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적극 고무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태양민족의 영광과 긍지안고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는데 기여하자

룡악산샘물공장, 중앙동물원 종업원궐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룡악산샘물공장, 중앙동물원 종업원들의 궐기모임이 29일에 각각 진행되였다.

모임들에는 량만길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림정규 평양시당위원회 비서, 홍철수 대성산지도국 국장, 관계부문 일군들,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룡악산샘물공장 종업원궐기모임에서는 지배인 김동숙의 보고에 이어 로동자들인 권영선, 우철수, 김창숙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수도시민들의 먹는물문제와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서 공장이 맡고있는 임무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지니고 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여 질좋은 샘물을 수도시민들에게 더 많이 공급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모든 종업원들이 공장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추진하고 보다 훌륭한 위생문화적환경을 조성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며 제품의 안정성과 무균화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중앙동물원 종업원궐기모임에서는 초급당비서 최룡균의 보고에 이어 원장 천철, 과장 주금철, 수의병원 과장 박웅철, 관리공 변금주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문화정서생활과 교육교양에서 동물원이 큰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며 관리운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동물종수를 늘이고 그에 맞게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먹이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수의병원의 운영을 잘하여 동물들을 적극 보호관리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동물사들의 내부와 외부를 완비하는 한편 동물사양관리를 과학화하고 관리공들의 책임성을 높여 선물동물들을 비롯한 희귀한 동물들을 잘 보존하고 더 많이 번식시킬데 대하여 그들은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공격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에게 무한대의 힘과 열정을 안겨주는 구호가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투쟁하며 창조하자!》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이 구호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전진과 승리의 기치로 높이 들고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북방의 철의 기지에 차넘치는것도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려는 드팀없는 의지이고 수천척지하막장에 용암처럼 끓어번지는 일념도 수령님의 전사, 제자, 수령님의 아들딸로서의 본분을 다하려는 고결한 충정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새기면 새길수록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부풀게 하고 끝없는 격정과 희열, 든든한 배심과 영웅성이 용솟음치게 하는 값높은 칭호이다.

◇ 희세의 걸출한 위인을 민족의 어버이로, 위대한 스승으로 모시고있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최상최대의 행운이며 영광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며 행복입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같이 포부와 리상이 원대하고 신념과 배짱이 강하며 비상한 창조와 비약의 대고조로 민족번영의 찬란한 전성기를 펼쳐오신 천출위인은 없다. 천만대적을 쥐락펴락하시며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맞받아뚫고 세월을 주름잡으며 사회주의승리의 위대한 력사를 창조해오신분이 우리 수령님이시다. 이런 위대한 수령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은 혁명을 알고 창조의 본때를 배웠으며 미래에 대한 락관주의정신을 키워왔다.

우리 인민은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역경도 수령님의 후손답게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쳐물아냈고 21세기의 첫 10년대도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정으로 수놓아왔다. 주체철과 주체비날론, 주체비료생산의 장쾌한 포성으로 선군시대 자립경제의 대승리를 안아오고 대계도의 기적을 창조한 대고조의 영웅들이 바로 우리 인민이다.

◇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는것은 수령님의 후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응당한 본분이며 지상의 과업이다.

오늘의 총공격전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의 존엄과 명예를 걸고 다시한번 선군조선의 대혁신, 대비약의 기상을 떨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슬하에서 자라난 전사, 제자답게 목표는 원대하게, 실천은 완강하게, 결실은 최상의 수준에서 완벽하게 해나가야 한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념을 안고 계속 혁신, 계속전진의 산울림으로 선군시대의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는 투사들이 우리 수령님의 참된 후손들이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희천발전소의 군인건설자들처럼 최대의 진격속도로 맹렬하게 돌진하며 련하기계개발자들처럼 세계를 굽어보며 통이 큰 작전을 펼쳐야 한다.

김일성조선의 100년력사를 총화하는 올해에 우리 수령님의 후손들이 지닌 백절불굴의 기상과 무한대한 창조력을 세계앞에 똑똑히 보여주어야 한다.

모든 힘을 인민생활대고조에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실속있게 벌려야 합니다.》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아래 공장들에서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에서 지난 28일현재 1월 인민경제계획을 104%로 넘쳐 수행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관리국의 일군들은 공동사설의 구절구절을 심장깊이 새기고 여러가지 지은옷을 맵시있고 보기 좋게 잘 만들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려나가고있다. 특히 일군들은 지난해에 진행되였던 여러차례의 인민소비품전시회를 통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고 가지수를 부쩍 늘인 성과와 경험을 살려 관리국아래 피복공장, 옷공장들에서 질제고를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도록 하고있다.

현대적인 상표제직기와 포장용주머니를 만드는 기계를 받아들여 생산공정의 현대화실현에서 큰걸음을 내짚은 관리국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올해에 인민소비품생산의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갈 결의에 넘쳐있다.

관리국아래 피복기술준비소의 기술자들은 3차원옷설계프로그람을 적극 활용하여 솜옷과 조선옷, 녀자달린옷, 어린이옷 등 지은옷의 설계를 과학기술적으로 함으로써 날로 높아가는 수요자들의 질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해나가려는 드높은 열의밑에 기세좋게 달려나가고있다.

평양피복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현대화의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자기들이 만드는 하나하나의 지은옷들이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평양창광옷공장, 만경대피복공장, 보통강피복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인민들의 입는 문제해결에서 자기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현대화된 설비들을 능숙하게 다루며 생산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잘해나가고있다.

형제산피복공장, 사동옷공장, 모란피복공장을 비롯한 관리국아래 모든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생산활성화와 질제고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기술혁신으로 풀어나가면서 요즘 매일 맡겨진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본사기자 명흥숙

평안북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에서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평안북도식료일용공업관리국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는 지방공업공장들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현대화하여 올해 총공격전의 앞장에 내세우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관리국의 해당 부서들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신 창성식료공장의 산과일가공공정의 자동화, 무균화를 실현하며 모든 생산공정들에 보다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어놓기 위한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설계를 앞세우면서 해당 공장, 기업소들과의 련계밑에 설비들의 생산보장사업을 적극 내밀고있다.

또한 창성직물공장과 창성종이공장의 설비현대화를 위한 사업도 힘껏 떠밀어주고있다.

관리국의 일군들은 신의주기초식품공장에서 발효실과 곡자실의 콤퓨터조종에 의한 운영을 실현하며 삭주식료공장에서 산과일단물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하는것을 비롯하여 20여개 령도업적단위들의 현대화를 힘있게 추진시키고있다.

관리국에서는 도안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지방에 흔한 원료원천을 최대로 동원리용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짜고들고있다.

관리국에서는 산을 끼고있는 군들에서는 산나물, 산과일을 대대적으로 따들이고 바다를 끼고있는 군들에서는 바다나물을 비롯한 수산물을 군중적으로 마련하여 여러가지 맛좋은 식료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한편 시, 군들과 식료공장들에서 원료기지들의 리용률을 높이게 하고있다. 그리고 수유나무림, 종이원료림조성사업, 파철, 파고무를 비롯한 유휴자재수집사업을 군중적으로 벌려 지방공업공장들에 필요한 원료를 보장해주도록 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조직진행하고있다.

특파기자 김기두

9월방직공장에서

9월방직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년초부터 방적사와 천생산을 맡은 직장들에서도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창대직천생산에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직장들과 작업반들을 맡고 내려간 공장의 일군들은 종업원들에게 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대중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방적사생산의 선행공정을 맡은 련조방직장의 일군들은 공무직장과의 깊은 련계밑에 치차를 비롯한 수십점의 예비부속품을 마련하여 방적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있다. 직장에서는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조사생산계획을 매일 어김없이 수행하고있다.

2정방직장에서는 작업반별 일생산 및 재정총화를 실속있게 진행하고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정방공들의 생산열의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방적사생산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포직장에서는 콤퓨터에 의한 종합관리체계를 리용하여 적은 로력으로 수십대의 창대직기를 만가동시키면서 천생산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1직포직장에서는 직포공들의 기술기능수준에 맞게 기대를 맡겨주고 그들이 천리마시대의 직포공들처럼 여러기대맡아보기운동을 힘있게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 맡겨진 천생산계획을 매일 넘쳐 수행하고있다.

보장단위들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일터마다에서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기료품직장에서는 피대, 고무로라 등 갖가지 기료품들을 생산하고있고 공무직장에서는 치차, 전동축을 비롯한 많은 설비부속품을 생산하여 방적사, 천생산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있다.

특파기자 동세웅

올해공동사설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다.
—락원기계련합기업소에서— 신충혁 찍음

천만군민을 완강한 공격정신의 소유자로

영웅적위훈으로 날과 달을 보내고 기적과 혁신으로 찬란한 래일을 마중해가는 오늘의 대고조는 그 어떤 광풍속에서도 드놀지 않는 김일성민족의 완강한 공격정신의 거세찬 발현이다.

례성강청년2호발전소와 현대적인 비날론공장, 남흥가스화대상, 대계도간석지, 룡성기계련합기업소의 선군주철공장, 금야강군민발전소를 비롯하여 지난해 완공된 모든 기념비적창조물들은 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이룩한 선군시대의 귀중한 재보들이다.

천만군민을 완강한 공격정신의 소유자들로!

여기에 준엄한 혁명의 년대기마다 언제나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으로 싸워 백승을 떨치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영원불멸할 업적이 있으며 주체위업,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우리 당의 사상은 공격사상이며 당의 혁명방식도 공격방식이다.》라는 올해공동사설의 구절구절이 이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 있는것도 바로 그래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승리자의 자랑과 긍지를 가지게 되였으며 높은 영예와 존엄을 온 세계에 떨치게 되였습니다.》

천만대적이 달려들어도 추호의 동요없이 오직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강대한 선군조선의 위력은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완강한 공격정신, 맞받아나가는 혁명방식에 그 원천을 두고있다.

일찌기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혁명적락관주의와 완강한 공격정신을 필승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주체조선, 영웅조선의 존엄을 누리에 떨쳐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지금도 우리의 가슴속에는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사건으로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였던 주체57(1968)년 2월, 적들의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고 선언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완강한 공격정신그대로 미제의 악랄한 침략책동을 맞받아나가는 전술로 단호히 짓부셔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이 깊이 새겨져있다.

그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와 로농적위대원들로 하여금 전투동원태세에 들어가도록 하시고 전체 인민이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그러시고는 평양대극장에서 예술공연을 성대하게 진행하도록 하시고 전국농업일군대회도 예견한 날에 열도록 하시였다.

당시 세계인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필승의 보검을 비껴들고 태연자약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우리 인민을 경탄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평양은 매우 랑만적이다. 민족의 관심하에 체육대회와 예술축전이 성황리에 개막되고 올해농사를 의논하게 될 농업일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농민대표들이 평양으로 들어서고있다.

〈워싱톤은 과연 평양을 굴복시킬수 있겠는가?〉

정견이 서로 다른 100명의 인사를 대상하여 이런 질문을 하였더니 그들은 하나처럼 대답하였다.

〈전쟁은 벌써 끝났다. 평양은 이겼다.〉》

그때뿐이 아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주체65(1976)년 미제가 판문점사건을 조작하고 무모한 군사적도발책동을 감행하였을 때와 주체72(1983)년 우리 나라의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끌고갔을 때에도 그리고 《특별사찰》소동과 때를 같이하여 모험적인 《팀스피리트93》합동군사연습을 벌릴 때에도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술로 적들을 호되게 답새기시였다.

그때마다 력사는 새기였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추호의 동요와 침체를 모르고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맞받아나가시는 희세의 위인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위력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돌이켜볼수록 조건은 어려웠고 맞다드는 원쑤들은 포악하기 이를데 없었지만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싸워 언제나 승리하였다.

주체82(1993)년 3월에 하달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0034호 《전국, 전민, 전군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함에 대하여》에는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일 때마다 언제나 맞받아나가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시는 백두령장의 완강한 공격정신이 그대로 어려있어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면적의 기상 용솟음치게 한다.

하늘이 무너지면 그 하늘을 떠받들어서라도 원쑤를 치고 혁명을 하여야 한다는 완강한 공격정신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떠나 결코 그 이름도 빛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영광스러운 어제와 오늘 그리고 찬란한 래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승리는 전적으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완강한 공격정신의 승리이다.

경제적난국으로 숨죽은 공장보다 먼저 인민군부대를 찾으시고 미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반공화국책동에 맞서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드신 경애하는 장군님,

적들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바로 여기에 위대한 백두령장의 드놀지 않는 기상이 얼마나 힘있게 맥박치고있는가. 겹쌓인 시련과 난관을 위대한 선군정치로 맞받아뚫고 헤치시던 나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말씀하시였다.

고난의 행군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항일혁명투쟁시기나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와는 대비도 되지 않는다. 수령님께서는 빈터우에서 맨주먹으로 혁명을 시작하시여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쌓아놓으신 튼튼한 토대우에서 우리가 난관을 극복하고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지 못할 조건이 없다. 나는 정세가 아무리 준엄하여도 비관에 빠지지 않으며 어렵고 복잡한 때일수록 모든 일을 웃으며 락관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고난과 시련이 겹쌓일수록 그것을 맞받아나가는것이 나의 의지이다. …

남들같으면 열백번도 더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였을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시고 공격좌지에 나서신 절세의 위인의 이렇듯 거룩한 자욱이 있어 이 땅우에 혁명적군인정신, 강계정신이 나래치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가 거세차게 타올라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위대한 전변의 력사, 창조와 건설의 새 력사가 펼쳐질수 있은것 아니던가.

안변청년발전소를 건설한 인민군군인들의 담력도, 민족의 자랑인 마라손녀왕, 유술녀왕의 강의한 기질도 우리 장군님의 완강한 공격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있다.

온 나라의 토지를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훌륭히 변모시킨 세기적변혁의 포성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울리시였으니 우리 장군님의 완강한 공격정신을 무슨 말로 다 칭송할수 있으랴.

서방의 많은 사람들이 《불가사의한 힘을 지닌 나라》라고 평하는 강대한 조선의 힘, 그것은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만장약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거세찬 발현이다.

실지체험을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살며 투쟁할 때 언제나 승리한다는것을 신념으로 깊이 간직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올해에도 당의 공격사상, 공격방식을 충직하게 받들어 기어이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킬것이다.

본사기자 리성국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

강성대국건설위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은 국토관리와 도시경영을 비롯하여 조국산천을 아름답게 변모시키는 사업에서 발현된다는 공동사설의 구절이 천만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준다. 내 조국을 푸른 숲이 우거진 살기 좋은 락원으로 만들어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며 조국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밑천입니다.》

주체97(2008)년 7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오가산자연보호구를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수백년, 천여년이상 자란 진귀한 천연기념물들로 울창하며 끝간데없이 펼쳐진 오가산의 태고연한 원시림은 그야말로 밀림의 바다였다.

오가산자연보호구전경도에 대한 해설을 들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내가 1964년 9월 수령님을 모시고 오가산에 왔던 때로부터도 40여년이 지났는데 오늘 여기에 오니 수령님생각이 더욱 간절해진다고 하시면서 오가산은 정말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력사적인 고장이라고 말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일군들모두의 가슴가슴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젖어들었다.

원시림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참 공기가 좋다고, 원시림이 멋있다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한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주목을 가리키며 우리 나라에서 제일 오래 자란 나무라고 자랑삼아 말씀올렸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신 그이께서는 이 주목은 1100년 자랐다는데 력사가 있는 나무라고 하시며 정말 볼만 하다고, 억센 조선의 기상을 보여주는것 같다고 하시고는 이 나무는 아래쪽에 내려가서 올려다보아야 더 멋있게 보일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오가산자연보호구의 산림분포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며 걸으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득 한 일군에게 오가산에 대한 기록영화가 있는가고 물으시였다. 최근에는 촬영한것이 없다는 그의 대답을 들으신 그이께서는 오가산자연보호구에 대한 선전을 잘해야 한다고, 과학영화나 기록영화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머지않아 산마다 푸른 숲 설레일 조국강산을 그려보시는듯 그이의 안광에는 기쁨의 미소가 짙게 어려있었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을 잘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원시림을 천연기념물로 잘 보존관리할데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울창한 원시림에서 떠나기 아쉬우신듯 이윽토록 산발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나는 자강도와 화평군의 일군들과 인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하여 오랜 력사를 가진 오가산자연보호구가 자기의 본태를 고이 간직하고있을뿐아니라 선군시대에 와서 그 내용이 보다 풍부화된데 대하여 만족하게 생각하며 애국의 열정을 다 바쳐 자연보호구를 훌륭히 보존관리한 도안의 인민들과 관리소 종업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자기들에게 이렇듯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그이를 우러르며 일군들은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갈 맹세를 다지였다.

열렬한 애국심은 나서자란 조국산천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라도 아끼고 사랑하는데서 표현된다.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내 조국의 산과 들은 푸른 숲으로 더욱 아름답게 단장되여 끝없이 설레일것이다.

로현찬

수령결사옹위의 산모범으로

과일군 연광농장 당조직에서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수령결사옹위의 산모범으로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을 교양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당세포와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신 자료들을 준비하여가지고 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리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또한 일군들부터가 작업현장들에 나가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리도록 하고있다.

얼마전에도 제3작업반에 나간 한 일군은 작업의 쉴참을 리용하여 류례없이 간고했던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백두산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 보여주신 수령결사옹위의 숭고한 모범을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들어가며 농업근로자들에게 해설해주었다.

로농통신원 리철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제16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와 하쉐미트요르단왕국 국왕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아디스 아바바

제16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 앞

나는 아프리카나라 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국제사회의 깊은 관심속에 아디스 아바바에서 제16차 아프리카동맹 국가 및 정부수뇌자회의가 열리는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이름으로 회의에 참가한 모든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대표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인사를 보냅니다.

온갖 힘의 사용과 그 위협을 반대하고 평화로운 환경속에서 정치, 경제적일체화를 비롯한 대륙의 문제들을 아프리카사람들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한 아프리카동맹의 긍정적인 발기와 노력들은 지역인민들의 새 사회건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으며 발전도상나라들의 광범한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대륙을 건설하기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우리 인민의 굳은 련대성을 재확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아프리카동맹, 그 성원국들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나는 아프리카의 대단결과 통합을 이룩하는데서 또 하나의 중요하고도 의의있는 계기로 될 이번 수뇌자회의가 성원국들의 기대와 념원에 맞게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0(2011)년 1월 29일 평 양

암 만

하쉐미트요르단왕국 국왕
아브둘라흐2세페하

나는 생일 49돐을 맞는 당신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면서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할것과 아울러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복리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0(2011)년 1월 27일 평 양

혁명일화를 통한 위대성교양

령대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위인적풍모를 보여주는 혁명일화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생동하면서도 깊이있게 반영한 혁명일화를 통한 교양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잘 알고 이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벌려나감으로써 올해공동사설 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탄부들의 열의를 부쩍 높여주고있다. 그리고 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혁명일화를 통한 화선식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도록 하고있다.

얼마전 2갱의 현장에서 탄부들과 함께 일하던 한 일군은 휴식시간에 혁명일화 《다시 태여난 서정시》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였다.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한 사랑을 가슴뜨겁게 전해주는 혁명일화의 내용을 들으며 모두의 심장은 세차게 불타올랐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탄부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은 석탄생산성과로 받들어갈 굳은 결의를 안고 막장마다에서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있다.

로농통신원 김봉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깊이 새겨가고있다.
—쑥섬혁명사적지에서— 김철우 찍음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

혁명군대지휘관들의 일본새를 따라배워

청천강피복공장에서

항일의 나날 언제나 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남먼저 뼈와 살로 새기고 그에 기초하여 작전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어렵고 힘든 모퉁이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던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의 투쟁기풍, 일본새는 전투마다 승리를 안아온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혁명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일군들부터가 이신작칙의 기풍으로 살며 일해나가자. 여기에 올해 경공업을 주공전선으로 내세운 당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전투승리의 첫째가는 비결이 있다.

안주시 청천강피복공장의 일군들이 이런 자각을 안고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대중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일군들이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가지고 조직지도사업을 짜고들어야 합니다.》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성과여부는 지휘성원들,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공동사설에 담겨진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긴 공장일군들은 당정책을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실천가, 당에서 준 과업을 가장 훌륭하게, 가장 성실하게, 가장 진실하게, 가장 완벽하게 집행하는 결사관철의 투사가 될 불타는 맹세안고 더욱 분발하고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울 때 기적과 위훈이 창조된다는것은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지난 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가슴깊이 새겨넣은 확고한 신념이다.

몇해전 이곳 지배인으로 임명되여온 김옥희동무는 고난의 흔적이 력력한 공장을 돌아보며 자기의 어깨우에 실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그럴수록 당정책의 운명을 걸머진 일군답게, 제대군인답게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일판을 대담하게 밀고나갈 결심이 굳어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처럼 준엄했던 항일의 나날에 비하면 지금의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다. 백두밀림에 타오르던 그 정신, 그 기풍으로 떨쳐나 이전보다 생산의 동음을 더 크게 울리자.)

김옥희동무는 무엇보다먼저 종업원들모두가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 고난의 천리를 걸으면 행복의 만리가 온다는 우리 혁명의 고귀한 철리를 심장깊이 새기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렸다.

상상하기 어려운 조건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슴불태우시며 온갖 애로와 난관을 박차고 600벌의 군복을 제기일안에 기어이 만들어내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조선인민혁명군 녀대원들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한 회상기학습이 매일과 같이 작업현장과 꾸리기전투장에서 실속있게 진행되였다.

한편 그는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종업원들의 생활과 생산에 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쳤다.

로동자들이 일하는 현장을 보다 깨끗하고 겨울에도 뜨뜻하게 하기 위한 건물보수전투를 발기하고 이끌던 이야기, 로동자들의 합숙과 후방기지건설에 필요한 자재구입을 위해 달리는 자동차에서 새우잠을 자며 먼길을 오가기도 하고 기능공대렬을 꾸리려고 종업원들과 함께 지새운 밤과 기술을 배워오기 위해 남모르게 걸은 길…

지배인을 비롯한 일군들의 열정적인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은 종업원들은 하루빨리 공장을 보란듯이 꾸려놓고 재봉기소리를 힘차게 울려 당의 뜻을 실천으로 받들어나가자고 결의다지며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로 날과 날을 보냈다.

드디여 공장에 재봉기소리가 다시 힘있게 울리기 시작했으며 일터마다 창조와 위훈의 불바람이 세차게 타번지였다.

력사적인 150일전투, 100일전투에서 불굴의 정신력을 높이 발휘하여 그해 인민경제계획을 기한전에 훨씬 넘쳐 수행한데 이어 당창건 65돐이 되는 지난해에도 비약적인 성과를 안고 10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선 공장종업원들,

긍지로운 추억은 인간의 정신력을 더욱 분출시킨다.

자기들의 힘으로 마련한 자랑스러운 창조물들을 보며 종업원들은 사상의 위력,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 얼마나 위력한것인가를 다시금 가슴벅차게 느끼고 자기 손으로 행복의 락원을 본때있게 꾸려갈 각오를 더 굳게 다지며 계속혁신의 불길을 활활 지펴올리고있다.

올해 공장에서는 강성대국건설의 결정적전환의 해에 맞게 보다 혁신적인 목표를 내걸고 년초부터 총공격전을 들이대고있다.

그 앞장에는 언제나 당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으로 자각하고 모든 일에서 이신작칙하는 김옥희, 고성호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이 서있다.

본사기자 계성남

학습을 실천과 결부하여

형제산식료공장에서

얼마전 형제산식료공장을 찾았던 우리는 백두밀림에 나래치던 혁명적학습기풍이야말로 우리모두가 만난을 이겨내고 끊임없는 비약에로 솟구치게 하는 근본비결이라는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의 혁명적인 학습방법들은 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되고 그 생활력이 확증된 훌륭한 학습방법입니다.》

당의 전투적호소따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격전에 과감히 떨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학습을 통하여 자신들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해나가면서 공장현대화를 위한 투쟁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다.

현대적인 식료가공설비들을 갖추는것과 함께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 자체의 힘으로 원료와 자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등이 학습과 결부되여 진취적으로 벌어지고있다.

하기에 일군인 김득평동무는 공장에서 이룩되고있는 크고작은 성과들은 모두가 혁명적학습기풍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라고 우리에게 자랑스럽게 말하였다.

혁명적학습기풍이 나래치는 곳에서는 언제나 신념의 강자들이 자라나고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된다.

당조직에서는 공장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활기를 띠고 벌어지게 하는데서 학습을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내세웠다.

(가로놓인 난관은 큰데 과연 무엇을 믿고 돌격전에 나서야 하는가.)

일군들의 생각은 한결으로 흘렀다.

믿을것은 생산자대중의 힘이다.

그들의 무궁무진한 사상정신력과 높은 창조적지혜가 총발동될 때만이 우리 자체의 힘으로 공장의 현대화를 하루빨리 실현할수 있다. 끊임없는 학습을 통해서만 대중의 정신력과 과학기술지식수준을 부단히 높여나갈수 있다는것이 그들의 일치한 견해였다.

일터마다에 혁명적인 학습기풍이 세차게 나래쳤다.

면밀한 계획밑에 진행되는 아침독보와 해설모임, 회상기발표모임을 비롯한 정치사상학습의 세찬 열기는 대중을 당의 사상과 로선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걸린 문제들을 대담하게 풀어나가는데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왔다.

종업원들 누구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항일유격대식으로 꾸준히 학습하며 공장의 현대화를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는 모습은 참으로 미덥다.

공장에서는 실속있는 과학기술학습을 통하여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짜고들고있다.

공장의 경험은 항일유격대식학습기풍이야말로 비약과 혁신의 훌륭한 원동력이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지금 인민생활향상에서 자기들이 지니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있다.

본사기자 강철남

청진시 라남구역체신소에서

일터를 밀림속의 숙영지처럼

항일유격대원들의 깐진 생활기풍을 따라배워 자체의 힘으로 일터를 백두밀림속의 숙영지처럼 알뜰하게 꾸려나가고있는 사람들속에는 청진시 라남구역체신소 종업원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지녔던 높은 혁명정신과 그들이 쌓아올린 혁명업적과 투쟁경험은 우리 인민이 영원히 따라배우고 계승해나가야 할 귀중한 재보입니다.》

10여년전까지만 해도 이곳 체신소의 면모는 지금과 같지 않았다.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은 종업원들의 심장은 세차게 높뛰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간고한 전투와 행군이 계속되는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적인 생활기풍을 높이 발휘하지 않았는가. 하루밤을 쉬여가도 숙영지를 알뜰하게 꾸리고 생활한 투사들처럼 살며 투쟁한다면 무엇을 못해내랴.

이것은 종업원모두의 결심이였다.

건설장에 자력갱생의 기풍이 세차게 나래쳤다. 사회주의경쟁의 열풍은 건설장을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지게 하였다.

종업원들은 자기 힘을 믿으면 승리자가 된다는 신념과 배짱을 안고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갔다.

그리하여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물을 손색없이 일떠세웠다.

종업원들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보다 혁신적으로 근기있게 벌려 오늘은 체신소를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일터로 전변시키였다. 그 나날에 종업원들은 항일유격대원들처럼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완강하게 돌진하는 자력갱생의 강자들로 억세게 자라났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를 혁명적으로 개변시켜나가는 사람이 참다운 강성대국건설자이라고 지적한 새해공동사설의 구절을 심장에 새긴 이곳 종업원들은 불굴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일터를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욱 현대적으로 전변시킬 불타는 결의를 안고 애국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김동철

우리의 손으로 빛내이자

아름다운 이 땅에서 대대로 민족번영의 꿈을 키워온 우리 인민은 강성대국건설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혁명의 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지혜롭고 근면한 노력으로 하루빨리 세계가 부러워하는 행복의 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인민의 지향과 념원의 분출인가 백두령장의 심장에서 울려나온 이 뜻깊은 진격의 구령은 날이 갈수록 세차게 강산을 울리고있다.

우리는 지금 수백가지의 질좋은 식료품이 나오는 선흥식료공장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새겨본다.

선흥식료공장!

이런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식료가공기지가 우리의것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어오른다.

여기가 10년전까지만 하여도 몇명의 녀성들이 모여 엿가마를 끓이던 곳이였다는것을 누구도 생각조차 할수 없을것이다.

어떻게 되여 선흥식료공장은 남먼저 흥하리라는 희망과 포부가 실린 그 이름처럼 시대의 앞장에서 기수마냥 힘차게 내달리고있는가.

빈터나 다름없었던 이 공장이 무슨 힘을 가졌기에 불과 몇년사이에 세계와 경쟁할수 있는 식료공장으로, 자기 땅에 발붙이고 세계를 굽어보는 조선사람의 본때와 배짱을 보여주는 희한한 일터로 변모되였는가.

우리 시대의 박차에는 넋이 있고 숨결이 있다.

우리의 경공업은 그저 먹고 입고 쓰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생산전선이 아니다. 제손으로 우리 인민이 좋아하는것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애국위업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일포특산물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찾아주신 귀중한 불꽃도 이것이며 온 나라에 삼일포특산물공장과 같은 종합적인 식료공장들을 일떠세워주시면서 구상하신 문제도 이것이였다.

하기에 평양곡산공장을 찾으시였던 12월의 그날 우리 인민이 어떤 인민인가, 고생을 많이 한 우리 인민이 가장 문명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시며 제품의 질제고와 공장현대화의 높이에 대하여 절절하게 깨우쳐주시던 위대한 장군님.

이 공장을 다시 찾으시여 이제는 합격이요, 합격!하고 기쁨에 넘쳐 외우시며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도록 떠밀어주시던 그이의 모습 인민의 마음속에 뜨겁게 새겨져있다.

선흥식료공장은 우리 장군님의 이 숭고한 애국의 뜻을 자기의 기업전략으로, 목표로 내세웠던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진정으로 애국을 하려면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애국적인 행동을 하여야 합니다.》

선흥식료공장의 비약은 민족적자존심으로부터 시작되였다.

공장이 창립되여 돌아가던 초기에 설비란 낡고 뒤떨어진것들뿐, 그 몇대마저 차려놓을만 한 건물도 변변치 못하였다. 이런데서 한해두해 일하면서 보니 더 가슴아픈것은 우리의 손으로 만든 훌륭한 식료품들이 짱짱 쏟아져나오지 못하는것이였다.

우리에게 있어서 조국과 운명을 함께 하는 애국, 민족의 번영을 걸머진 애국이란 무엇이겠는가. 자기의것이 남의것보다 더 소중하고 제일 훌륭하다는것을 증명해보일수 있는 창조가 아니겠는가.

온 세상이 우리의 제품, 우리의 기술, 우리의 발전을 부러워하게 하고싶은 뜨거운 갈망,

이 민족적자존심의 분출이 평범한 녀성들의 생산활동을 첨단을 개척하는 격전으로 되게 하는 계기로 되였다고 지배인 리희숙동무는 말한다.

지난해 12월 선흥식료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자존심과 배짱을 가지고 로동자들을 불러일으켜 식료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제품의 포장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는 일군의 보고를 받으시고 잘했다고 치하해주시며 크나큰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공업발전의 기초는 원료나 설비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 민족자강의 슬기와 힘을 키우며 번영의 터전을 자기 손으로 꽃피우려는 의지, 이것이 경공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면서 새겨야 할 심장의 선서이다.

우리 당이 경공업에 다시한번 박차를 가하려는것은 우리 세대의 복락을 위해서만이 아니다. 자기의 손으로 부를 만들어내는 민족자존의 정신력을 무궁무진한 힘으로 하여 후손만대가 대대로 잘 살게 하자는것이다.

우리 인민들이 즐겨찾는 갖가지 질좋은 식료품들을 생산하는 선흥식료공장의 녀성들은 위대한 장군님 가르쳐주신대로 앞서면 강자가 되고 뒤떨어지면 약자로 밀려나게 된다는 비상한 자각, 절대로 남에게 뒤떨어지거나 눌리우지 않겠다는 강한 민족적자존심으로 분발하여 일떠설 때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는것을 보여준 시대의 강자들이다.

비약에도 묘술이 있고 방법론이 있어야 한다.

현실은 자기의 일터, 자기의 기대, 자기의 능력에 발붙일것을 요구한다.

지금에 와서 이곳 로동계급도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해놓은 일이 옳은가고 믿기 어려워하는 비약, 말그대로 천지개벽을 일으킨 공장의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제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강령적인 지침을 연구하는 과정에 우리는 개미가 뼈다귀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방법으로 기술을 개건하고 생산토대를 확대해나가는것이 제일이라는것을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선흥식료공장의 로동계급이 오늘 긍지높이 추억하는 이 비약의 원리야말로 토대도 없는 공장에 알맞는 성공의 지름길이였다. 나라에 손을 내밀지 않고 자체로 일떠설 열의에 충만된 이곳 녀성들의 기업발전묘술이였다.

작은 공장답게 크지 않은 절약으로부터 비약의 첫걸음을 떼였다.

식료품생산공정에서 공정감모량을 조금이라도 낮출수 없겠는가, 이렇게 원료운반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 생산의 모든 공정들에서 원자재를 절약할수 있는 공간을 따져보았다. 생산과정에 기계에 묻는 반죽물도 홀시하지 않았다. 여기서 얻는 예비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아글타글 마련하여 현대적인 설비 한대를 차려놓고 생산성을 높여 다시 또 한대를 놓는 식으로 발벋발벋 진보해왔다.

하여 시간을 아끼고 원료를 절약하고 로력과 자재랑비를 없애는것과 같은 길들을 지나왔기에 오늘날에는 첨단돌파라는 대도로에 당당히 들어서게 된것이다.

경제사업은 수학이나 같다. 미적분이나 확률론과 같은 수학의 세계에도 초보적인 셈법이 놓여있다. 경제사업에서도 0.1%, 1분간 같은 작은것이 증산과 창조, 비약과 첨단돌파와 같은 큰것으로 이어지며 애국이라는 성스럽고 고귀한 삶으로 빛을 뿌리게 되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흥식료공장에서 몇해동안 현대화를 작은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해마다 2~3배로 생산을 늘이고 오늘은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는 공장으로 되였다고 하시면서 일을 아주 잘하였다고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피땀이 스미지 않은 비약이란 있을수 없다.

오늘 선흥식료공장이 첨단돌파의 령마루에 올라선것은 남보다 잠을 적게 자고 걸음을 많이 걸은데도 있지만 기본은 세계와 경쟁하는 두뇌전속에 과학적인 사고방식, 실리적인 경영활동, 필요한 인재육성과 기술갱신을 생명선으로 틀어쥔데 비결이 있다.

경공업의 발전은 기술발전이고 우리의 비약이란 곧 기술적진보이다.

례사롭게 보이는 식료품들의 미세한 맛차이를 위해, 제품 한가지 한가지의 개발을 위해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바치는 노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식료품들에 대한 수집과 분석,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식료품들에 대한 피타는 연구, 인민들의 수요와 우리 민족의 미학정서, 구미에 따라서기 위한 끊임없는 탐구, 생산원가를 낮추기 위한 지혜의 발동, 앞선 기술을 배우고 또 배우며 갓 개발한 높은 수준의 제품보다 더 좋게 만들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서슴없이 갱신에 달라붙는 혁신적인 기풍…

이런 꾸준한 활동으로 일관된 여기서는 일군들과 생산자들모두가 기술자이고 착상자이며 새 제품개발자이다.

공장에서 매달 진행하고있는 새 제품전시회, 상표전시회만 보아도 풍성한 열매를 안아오는가를 잘 설명해주고있다.

이곳 로동계급은 생산량을 10년사이에 무려 수십배나 장성시킴으로써 새 세기의 비약을 현실로 보여주었다.

우리의 손으로 이 땅에 행복과 번영을 가져오는것이 결코 아득한 목표가 아니며 우리의 투쟁에는 이미 승리가 약속되여있다는것을 확신시켜주었다.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포유리병공장을 찾으시여 그처럼 만족해하신것도 남들이 못 만든다고 하던 현대적인 설비를 만들어내고 남들이 못 세울것이라고 하던 공장을 조선의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이 일떠세워 돌리고있는것이 대견하시여서가 아니였던가.

여기에 바쳐진 민족자존의 정신력과 기술적잠재력을 밑천으로 하여 다시한번 박차를 가한다면 가장 훌륭하고 멋들어진 우리의 제품을 짱짱 만들어낼 래일을 확신하시였기에 여기에 오니 온갖 시름이 다 풀린다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였으리라.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애국의 호소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가슴을 쿵쿵 울린다.

아침의 해빛이 아름다운 내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길이길이 빛내이자고 《조선의 노래》의 구절구절에 담으시던 어버이수령님의 애국의 의지가 맥박치는 시대의 부름이다.

우리는 자기의 손으로 만든 제일 훌륭한 제품을 쓰면서 본때있게 잘 살아야 한다.

이 땅의 공민들이여,

신심드높이 두팔걷고 나서자. 경공업에 애국의 박차, 승리의 박차를 다시한번 가하자.

남들의 발전을 따라갈것이 아니라 단연 앞서겠다는 원대한 포부와 리상을 가지고 세상을 들었다놓을수 있는 통이 큰 목표를 세우며 남들의 백걸음, 천걸음을 한걸음에 뛰여넘는 도약의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

선흥식료공장은 한단계 더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박차를 가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흥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무인화방향으로 나갈데 대한 보람찬 투쟁의 화살표를 그어주시였다.

무균화, 자동화에서 무인화에로!

선흥식료공장은 지금 이 희망의 고지도 단숨에 정복할 만만한 열의에 넘쳐있다.

새로운 경공업기지들을 일떠세우는것과 함께 이미 생산토대가 갖추어진 경공업공장들이 계속전진의 박차속에 큰 은을 나타내야 한다.

대규모공장이든 중소규모공장이든, 중앙공업이든 지방공업이든 불타는 애국심에 자기 식의 묘술을 안받침하면 설비와 원료문제도 풀린다.

경공업에 다시한번 가해야 할 박차는 량과 질을 동시에 비약시켜야 하는 거창한 사업이다.

식료공업부문에서 사회주의만세소리 높이 울리겠다는 배심으로 혁신해온 선흥식료공장처럼 경공업제품의 가지수와 량을 최대로 늘일뿐아니라 제품의 포장과 질을 끊임없이 갱신해나가는것이 우리 시대의 요구이다.

일터마다 조건과 환경도 다르고 도전에 대응하는 방식도 같지 않다.

그러나 백두밀림에 차넘치던 연길폭탄정신으로 제힘을 믿고 떨쳐나 시간을 틀어쥐고 기회를 만들며 한계단, 두계단 올라서면 불가능이란 없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근에 우리 인민들을 위하여 마련해주신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을 보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그이의 리상과 새 세기 문명의 높이를 알수 있다.

방직, 피복, 식료, 신발 등 경공업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장군님의 뜻을 잘 알고 오늘보다 더 높은 단계에로 뛰여오르기 위한 박차를 계속 가해야 한다.

평범한것에 위대한것이 있고 작은것이 합쳐져 큰것이 된다.

하나하나의 물방울들이 모여 대하를 이루듯 다계단비약이라는 거창한 변혁도 바로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의 기대앞에서 매 공민들의 량심적인 책임감으로부터 시작되는것이다.

선흥식료공장에서처럼 평범한것에서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는 신념의 눈, 소박한것을 훌륭한것으로 되게 하는 헌신의 땀, 사소한것에서 커다란 발견을 해내는 두뇌!

이것이 어디에나 잠재하여있는 우리의 힘이다. 여기서 창조의 주추돌이 놓여지고 기둥이 세워져 강성대국의 큰집이 일떠서는것이다.

경공업의 획기적인 발전과 비약은 일군들에게 달려있다.

이번에 선흥식료공장과 향만루대중식당의 개건사업을 잘 이끌어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경흥지도국 일군들의 일본새를 보면 진취적이고 과학적이다.

기업발전이 단순한 확대재생산이 아니라 사회주의본태를 지키고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는 과정으로 되게 안목을 틔워주고 실천적인 방도를 찾아내는 일군, 자그마한 싹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이 열매로 맺힐수 있게 작전과 지휘, 원료, 자재보장사업을 쇠소리나게 하는 일군이 되여야 한다.

자기를 알고 현실을 알고 세계를 알고 확고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 이들처럼 작은 규모에서 큰 규모에로, 낮은 기술로부터 보다 높은 기술로 비약시키고 제품을 개발해도 내 나라의것이 제일이라고 자부할수 있게 한다면 조국과 시대가 부르는 일군이라고 할수 있다.

경공업은 뿌리가 든든하고 줄기와 가지가 왕성해야 풍만하게 달리는 열매와 같다.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경공업에 설비와 자재, 원료와 연료를 적극 보장해주고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슬기와 재능을 한껏 보태여줄 때 경공업전선에서 승리의 개가를 올릴수 있다.

조국과 온 세계가 우리의 비약을 지켜보고있다.

지금 이 시각도 눈보라 헤치시며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강행군에 끝없이 박차를 가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자욱에 대진군의 보폭을 함께 해나가자.

그이의 높은 뜻과 강의한 의지에 심장의 박동을 따라세우며 인민생활향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자.

위대한 장군님을 높이 모신 내 나라에 넘치는 번영의 기상이 얼마나 기세차고 **김일성**조선의 미래가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가를 온 세상에 보여주자.

위대한 내 조국을 우리의 손으로 빛내이자!

리 동 찬

농업전선에 타오르는 혁신의 불길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은천군 량담농장 초급당위원회 사업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상이 발동되면 모든것이 풀릴수 있으며 어디에서나 예비가 쏟아져나오고 앙양이 일어날수 있습니다.》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을 지켜섰다는 자각을 안고 은천군 3대혁명붉은기 량담농장의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더욱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바람을 일으키며 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초급당위원회와 관리위원회 일군들이 기술자들과 마주앉아 올해에 수행해야 할 기술혁신목표들을 놓고 협의회를 할 때였다.

수리분조장 류명철동무와 기계화작업반 정비공 김길학동무를 비롯한 농장의 기술자들은 이미 만들어놓은 농기계들을 만가동시키는데서 미흡한 점들을 없애기 위한 문제, 농기계부속품들, 농기구들의 생산과 뜨락또르부속품들의 가공과 같은 여러건의 기술혁신목표들을 스스로 제기하였다. 일군들도 놀랄 정도로 높은 전투목표였다.

지난해에도 농장의 기술자들은 기사장 리진호동무와 손을 맞잡고 수십대의 모내는기계들을 영양모와 랭상모도 다 낼수 있게 개조하고 여러대의 강냉이종합탈곡기와 수십대의 성능좋은 새끼꼬는기계를 만들어놓았으며 농기계부문 과학자들과 창조적지혜를 합쳐 깊은층들춰 갈이보습을 만들어 농업생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런 성과의 비결은 초급당비서 김종운동무를 비롯한 초급당일군들이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마음과의 사업, 감정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킨데 있다.

이런 실례가 있다.

두해전 가을 어느날 새로운 탈곡기를 만들고있던 기술자 류동무는 뜻밖에 눈을 상하게 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초급당비서는 군인민병원까지 함께 가서 그의 눈상태를 확인하고 중앙의 전문병원으로 급히 보내야 한다는 의사들의 말을 듣고는 또다시 평양에 농장의 일군들이 따라가도록 하였다.

류동무는 눈치료를 받고있던 도중에 추석을 맞게 되였다.

명절날에 환자가 외로와할가봐 마음을 쓰던 초급당비서는 추석전날 평양에 있는 친척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의 마음을 합쳐 꼭 류동무에게 면회를 갈데 대한 부탁을 하였다.

추석날 병원에서 류동무는 면회온 초급당비서의 친척을 만나고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사람이 감동되면 정신적으로 분발하는 법이다. 류동무는 보건일군들의 지극한 정성과 초급당일군들의 뜨거운 마음에 의하여 완쾌되자 며칠간 안정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권고도 마다하고 농장으로 달려왔다. 그리고는 낮과 밤이 따로없이 계획하였던 탈곡기제작을 다그쳐 끝내였다.

기술자들을 감동시킨 이야기를 다하자면 끝이 없다. 그들이 험한 일을 한다고 작업복과 신발문제에까지 관심을 돌려 풀어주고있는 초급당일군들은 올해 양력설을 맞으면서도 기술자들의 생활조건보장에 왼심을 썼다. 당일군들의 뜨거운 진정은 언제나 기술자들의 감동을 자아냈고 더 많은 일을 할 각오를 가다듬게 하였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처럼 기술자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줄수록 그것은 그들의 자각적열성을 높이는데로 이어져 기술혁신성과를 안아오는 법이다.

본사기자 리종석

청년들이 큰 몫을 맡아

고원군 문하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를 지대적특성에 맞게 지어야 풍작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새해공동사설을 받아안은 고원군 문하협동농장 일군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았다.

올해농사차비를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일군들이 앞장에 서자. 이렇게 결심한 일군들은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기 위해 강바닥의 해묵은 감탕을 파내자는 혁신적인 안을 내놓았다. 그리하여 짧은 기간에 감탕을 파내여 포전에 실어내기 위한 전투적인 목표가 세워졌다.

높이 세운 목표를 실현하자면 결정적으로 로력문제를 풀어야 하였다.

방도는 무엇인가. 일군들이 이렇게 생각하고있을 때 리당일군이 청년들에게 맡기는것이 어떤가고 하는것이였다.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이 일을 맡아나선다면 작업능률이 쑥 오를것은 뻔한 일이였다. 그후 일군들은 신심에 넘쳐 청년들과 무릎을 마주하였다. 청년들은 올해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서 마땅히 자기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고 하면서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농장의 청년들이 한결같이 떨쳐나서니 다음날부터 감탕파기작업이 활기있게 벌어졌다. 강추위로 땅땅 얼어붙은 강바닥은 청년들의 의지를 시험하려는듯 하였다. 하지만 청년들은 기세를 올리면서 날마다 혁신을 일으켜나갔다. 작업반들사이에 사회주의경쟁이 벌어졌다.

현장에 달려나온 일군들은 휴식참이면 청년들과 무릎을 같이하고 공동사설의 정신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청춘의 열정을 다 바쳐가자고 힘있게 호소하였다.

제2작업반의 청년들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다. 이들은 함마와 정대를 비롯한 작업도구를 예견성있게 갖추어놓고 련일 실적을 올리였다. 초급일군들은 운반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여 감탕을 파내는족족 포전으로 실어내도록 하였다. 제1작업반의 청년들도 농장의 큰 짐은 자기들이 걸머져야 한다고 하면서 일정계획을 날마다 넘쳐 수행하였다.

청년들의 드높은 열정에 의하여 매일 수십t의 감탕이 포전으로 실려나갔다.

본사기자 홍성철

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대동강축전지공장에서— 본사기자 김광혁 찍음

버리는것 없이 일 잘하는 공장

121호림업련합기업소 혜산목재가공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

얼마전 우리는 121호림업련합기업소 혜산목재가공공장을 찾았다.

공장구내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한해전과는 달리 공장구내의 전경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생산공정마다에서 거세찬 동음이 가슴후련하게 들려왔던것이다. 이전과 달리 현대화된 건조로, 각종 가공설비들이 흐름식으로 구색이 맞게 들어앉은 생산공정 또한 볼만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목재를 종합적으로, 효과적으로 리용하자면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목재가공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몰라보게 변모된 그 비결을 우리는 공장일군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 알게 되였다.

혜산목재가공공장은 통나무를 켜서 반제품으로 만들던 그리 크지 않은 목재가공기지이다. 공장은 지난 기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 련합기업소적으로도 일 잘하는 공장으로 소문났다.

하지만 지배인 문예상동무는 그것으로 만족할수 없었다.

(당에서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고 하지 않았는가. 오늘의 성과에 만족한다면 내가 무슨 우리 당에서 바라는 일군이라고 할수 있겠는가. 우리도 당당히 대진군의 앞장에 서자.)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목재가공방법이 다양해지고 이에 따라 가공품들도 늘어난다는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지배인이였다. 문예상동무의 생각은 쪽무이널에 미치였다. 통나무를 켜고 나온 폐설물로 쪽무이를 한 다음 풀을 바르고 압착하면 얼마든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수 있으리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렇게 제작한 목재가공품들은 습기에 의한 변형이 없고 나무를 버리는것 없이 다 리용할수 있어 좋을것이였다. 보다 작은 나무조각으로는 장기쪽이나 팽이와 같은 소비품을 만들수 있었다.

쪽무이널자재로는 용재로 리용가치가 적은 나무들도 얼마든지 리용할수 있었다.

지배인의 발기는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생산공정현대화를 위하여 공장에서는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어놓는데 큰 힘을 넣었다.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지배인은 어렵다 하더라도 현대화를 먼 앞날을 내다보며 높은 수준에서 전망성있게 추진시키기로 결심하였다. 목재가공설비들은 어떤것이여야 하며 새 설비를 어떻게 배치하는것이 합리적인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았다. 그 과정에 모든 생산공정이 흐름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였다.

지배인은 모든 생산공정들이 현대적인 설비들로 꾸려진데 맞게 생산자대중의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그리고 모든 기대공들이 설비관리, 기술관리의 주인이 되여 표준조작법과 기술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였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생산공정이 현대화된 공장은 응당한 생활력을 나타냈다. 이들의 소식은 다른 목재가공공장생산자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여러가지 반제품들과 쓸모있는 제품들을 흐뭇한 마음을 안고 돌아본 우리는 이들처럼 사업을 혁신적안목을 가지고 전개해나갈 때 당의 방침 관철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리라는것을 확신하였다.

특파기자 전철주

축산기지에서 많은 거름을

새해공동사설을 받아안고 승리의 신심에 넘쳐있는 **벽동군 송사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많은 거름을 생산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농장을 찾으시여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게 풀먹는집짐승을 많이 기를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농장에서는 지난 기간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왔다. 농장일군들은 튼튼히 꾸려진 축산토대를 적극 리용하여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농장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염소를 많이 기르고있는 제6작업반의 농장원들이 앞장에 섰다. 작업반에서는 낟알짚을 염소우리에서 밟혀내여 이미 거름을 여러곳에 쌓아놓았다. 제4작업반이 그뒤를 바싹 따라서고있다. 거름더미는 곧 쌀더미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작업반의 농장원들은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기 위한 경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축산작업반을 비롯한 다른 작업반들에서도 겨울철조건에 맞게 집짐승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고있다.

인민생활문제해결의 생명선을 지켜선 긍지를 안고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포전마다에는 거름더미가 더욱 높아지고있다.

본사기자

앞그루작물농사준비를 착실히

대동군 장산협동농장에서

대동군 장산협동농장에 가면 새것처럼 수리정비된 밀, 보리씨뿌리는기계들을 비롯한 앞그루작물농사에 필요한 많은 농기계들을 볼수 있다.

공동사설의 전투적과업을 받들고 농장에서는 올해에 두벌농사면적을 지난해보다 훨씬 더 늘이였다.

그런것만큼 해야 할 일도 많고 풀어야 할 문제도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적지를 선정하고 종자를 준비해야 하였으며 두벌농사포전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소홀히 할수 없었다.

하지만 농장일군들이 제일 중시한것은 로력문제였다. 지난해의 농사경험을 놓고보아도 로력문제를 풀지 못하면 앞그루작물심기와 가을뿐아니라 뒤그루작물심기에서도 적기를 보장할수 없었던것이다.

로력문제를 풀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당의 뜻대로 농기계들을 적극 리용하는것이였다.

일군들은 곧 기계화작업반원들과 무릎을 마주하였다. 그 과정에 자체로 전기문제만 해결하면 농장에 있는 농기계들을 얼마든지 수리정비하여 두벌농사의 여러 영농작업을 기계로 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일군들과 기계화작업반원들은 벼겨가스를 리용한 발동발전기를 자체의 힘으로 만들기 위한 힘찬 전투를 벌리였다. 다른 단위의 경험을 배우고 필요한 기술자료와 자재를 구해오느라 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이 걸은 길은 얼마이고 지새운 밤은 얼마였던가.

그 결과는 좋았다. 이들은 끝끝내 벼겨가스를 리용하는 발동발전기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게 되였다.

농장일군들과 기계화작업반원들은 그 기세를 늦춤이 없이 농기계수리전투에 달라붙었다. 발동발전기의 동음속에 농기계수리에서는 전례없는 혁신이 일어나고 짧은 기간에 두벌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들을 전부 수리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오늘도 농장일군들과 기계화작업반원들은 뜨락또르와 모내는기계를 비롯한 농기계수리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본사기자 한성일

온 나라를 인민생활향상에로 부르는 힘있는 화폭

새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선전화전람회를 보고

새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선전화전람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이번 전람회에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로 천만군민을 고무추동하는 60여점의 우수한 선전화작품들이 출품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선전화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의의있는 현상들과 대상들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형식으로서 대중선전선동사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전람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이 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시고 우리 인민을 부강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백두산장군들의 위대성을 기념비적화폭으로 훌륭하게 형상함으로써 전람회의 사상예술성을 더욱 부각시키였다.

선전화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의 최상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공화국을 주체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가장 뜻깊고 의의있는 명절로 맞이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조형예술적화폭속에 담아 보여주었다.

선전화는 중심에 밝고 환하게 웃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시고 푸른 창공을 배경으로 기기묘묘한 축포꽃바다가 펼쳐지는 장면을 형상함으로써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시여 부강번영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수령님을 흠모하고 따르는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마음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낮이나 밤이나 인민의 행복을 위해 마음쓰시며 경공업공장들을 찾고 또 찾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선전화 《당의 뜨거운 은정이 깃든 경공업공장들에서 더 많은 인민소비품을!》은 참관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선전화는 하얀 위생복을 입으시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당과류를 손에 드시고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일터에 장군님을 모신 기쁨과 환희를 감추지 못하는 녀성로동자들을 원형구도속에 배치함으로써 올해에도 인민생활향상에 박차를 가하여 강성대국건설에 힘있게 이바지하려는 우리 인민의 드높은 기상과 열정을 깊이있게 보여주었다.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힘있고 박력있게 형상한 작품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경제강국건설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일 우리 인민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 주체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폭넓은 화폭으로 보여주었다.

올해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를 형상화한 선전화 《올해에 다시한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전환을 일으키자!》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작품은 필필이 쏟아지는 천을 잡고있는 방직공을 화면의 뒤부분에 묘사하고 희천발전소, CNC, 10만세대 등의 글발을 새기고 기세차게 나가는 로동계급을 동적인 구도속에 형상함으로써 올해공동사설의 사상과 정신을 집약적으로 박력있게 반영하였다.

선전화 《양어를 과학화하여 인민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회령과 강계에서처럼 자체의 원료원천으로 더 많은 상품을!》 등은 거창한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을 힘있게 벌려 강성대국의 높은 봉우리를 하루빨리 점령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조형예술적화폭속에 담아 훌륭히 형상한 작품들이다.

선전화 《석탄을 팡팡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자!》는 석탄공업부문에서 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탄광들에 힘을 집중하고 석탄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일것을 호소하는 작품이다.

작품은 화면의 원경에 채탄기를 형상하고 힘있게 돌아가는 발전소, 쏟아지는 강재, 주체비료, 천 등을 형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민생활향상에서 석탄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를 힘있게 강조하였다.

선전화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리자!》는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단위에서 생활필수품생산을 부쩍 늘일것을 호소하였다.

전람회에는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김철의 영웅적로동계급처럼 인민생활대고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하는 밑불이 될것을 호소하는 선전화 《김철의 신념과 본때, 실천력으로 대고조의 승리를!》도 전시되였다. 작품은 무선마이크를 틀어쥐고 강철을 생산하는 로동자를 회화적기법으로 형상하였으며 배경에 생산이 활성화되고있는 공장, 기업소를 형상하고 그와 대조되는 색으로 CNC라는 글자를 써넣음으로써 최첨단돌파의 불길높이 세계를 향하여 돌진해가는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모습을 전형화하였다.

전람회에 출품된 선전화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자!》 등은 농업부문에서 치렬한 추적전, 경쟁전을 벌려 당의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할것을 힘있게 호소하였다.

배경에 풍년벼단을 형상하고 미곡, 삼지강, 은흥, 신암, 동봉이라는 글자들을 상승감이 나게 형상한 선전화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비약적으로 높이기 위한 경쟁을 힘있게 벌려나가자!》는 강한 색조속에 《생명선》이라는 글자를 두드러지게 보여줌으로써 올해 농업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람회에는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전반적수송수요를 원만히 풀자!》, 《현대적인 기관차, 화차를 더 많이 생산하자!》 등 다양한 주제의 선전화들이 많이 전시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경제강국건설에로 적극 고무추동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관철을 위한 보람찬 투쟁과 위훈속에 벌어지는 인간들의 생활세부를 정서적으로 형상하고 전투성, 호소성, 직관성이 강하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장엄한 기개와 랑만을 선전화의 화폭속에 훌륭히 반영한것이 이번 전람회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다.

청년들이 강성대국건설의 격전장마다에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기발을 펄펄 휘날리며 대중적영웅주의를 높이 발휘할것을 호소하는 선전화 《활력있는 청년대군은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주력군!》, 《오늘의 강성대국건설에서 청년들 앞으로!》, 《오늘의 훈련은 래일의 전투영웅을 키우는 용광로!》 등은 당의 부름따라 조국보위와 강성대국건설에서 앞장서나가려는 우리 청년들의 높은 포부와 혁명적열정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선전화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인재대국으로 빛내이자!》, 《선군조선을 명성높은 축구강국으로!》 등은 자기 땅에 발붙이고 눈은 세계를 내다보며 더 높이 비약할것을 바라는 우리 당의 최첨단돌파사상을 결사관철하기 위해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인민의 투쟁열의를 조형예술적화폭을 통하여 힘있게 강조하였다.

독특한 형상수법과 기교들을 재치있게 활용하여 선전화의 양상을 잘 살린것은 이번 전람회가 거둔 예술적성과로 된다.

선전화 《인민의 행복을 위한 희천발전소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자!》는 양상이 새롭고 기교가 있는 작품으로서 참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이번 전람회는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장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강국건설위업을 실현하고 **김일성**조선의 100년사를 빛나게 총화하려는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 불굴의 기상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평양미술대학 임 성

해주고등예술전문학교에서

훌륭한 예술인재후비들이 자라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특출한 예술인재들을 키워내는가 못내는가 하는것은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인 교원들에게 달려있습니다.》

해주고등예술전문학교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훌륭한 예술인재후비들을 키우기 위한 사업을 잘하고있다.

양옥실, 김춘일, 정진명동무를 비롯한 학교의 일군들은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적인 학생청소년예술개인경연준비를 통하여 교원들과 학생들의 수준을 높여줄 결심을 하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왔다.

학교당조직에서는 성악강좌와 무용강좌에서부터 모범을 창조하고 그것을 일반화하도록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학생들의 기량발표회와 교원들의 강좌집체토론회들이 활발히 벌어졌다. 이 과정에 강좌장들인 전기욱, 최은숙동무들은 대상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지도를 하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발표회에 출연할 매 학생에게 우수한 교원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성악과 무용을 하는 학생들이 작품의 형상세계에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록화물과 다매체편집물을 통하여 혁명가극과 무용작품들에 대한 감상을 정상적으로 조직한것이 학생들의 정서교육에도 좋고 작품의 주인공들의 내면세계에 깊숙이 끌려들어가게 하는데도 매우 좋았다.

결과 학생들이 소리방법론과 실기동작일면에만 치우치던 경향이 없어지고 충분한 자감상태를 보장함으로써 성악과 무용련습의 효과를 더욱 높일수 있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성악강좌의 리일화, 김혜련교원들은 담당한 학생들의 소리색갈에 맞는 노래선택을 신중하게 하고 대상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따르는 과학적인 발성법과 호흡훈련을 주어 종전의 결함들을 극복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학생들에게 실지 경연무대에서 하는것처럼 출연도 시켜보고 그것을 록화하여 보여주면서 세부적인 우결함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의 예술기량수준과 형상수준을 훨씬 높였다.

이렇게 품을 들인 결과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제14차 전국학생청소년예술개인경연에서 리경순, 홍은정학생들이 녀성고음과 중음독창에서 1등을 하였고 한주향학생이 독무에서 2등을 하였으며 여러명의 학생들이 3등을 쟁취하는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여기에서 신심을 얻은 학교의 교육자들은 인민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훌륭한 예술인재후비들을 앞으로도 더 많이 키워낼 열의를 안고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정열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백 성 근

절세위인들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작품마다에 수놓아간다. —평양수예연구소에서— 최충성 찍음

은반우에 넘치는 기쁨과 랑만

빙상관을 찾아서

허나 어버이장군님께서는 실내공기를 순환시켜 온도조절만 해준다면 오염된 공기가 그대로 있어 인민들의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시면서 자본가들에게는 공사비와 운영비가 문제이겠지만 인민을 위한 우리의 건설사업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자금을 아끼지 말고 랭각설비까지 갖추어 일년 열두달 빙상관을 운영하도록 해주시였다고 한다.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는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에 눈굽이 달아올랐다.

관람홀에 들어서니 드넓은 빙상장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다. 마침 호케이경기가 진행되고있었다. 중국에서 진행하는 국제경기에 출전할 녀자호케이국가종합팀과 수산성체육단팀과의 경기였다. 경기를 예리한 눈으로 주시하고있던 수산성체육단 감독은 이렇게 말하였다.

《녀자호케이선수들이 한해사이에 무척 발전하였습니다. 훌륭한 훈련조건을 갖춘 빙상관을 떠나 이런 성과를 생각할수 있겠습니까. 고마운 당과 조국을 금메달로 받들 생각뿐입니다.》

이것은 그만이 아닌 녀자호케이선수들의 한결같은 마음이였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은반우의 새별들》, 《김진성선수 훈련에 적극 참가!》…

빙상장에 나붙은 속보들을 통하여 체육선수들의 충정의 세계를 새겨보면서 우리는 취재를 이어갔다. 육체훈련실에서는 휘거선수들이 육체훈련, 무용훈련에 열중하고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휘거지도교원들인 로태광, 현영호동무들을 만났다.

그들은 올해 스무번째의 뜻깊은 막을 올리게 될 백두산상국제휘거축전을 앞두고 진행하는 맹렬한 훈련이라고 하면서 이들은 모두 빙상관청소년체육학교 학생들이라고 말하였다. 청소년들을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키워내고있는 청소년체육학교는 나라의 빙상체육선수후비육성의 원종장이라고 말할수 있었다.

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학교에서는 국제무대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 휘거선수들이 많이 배출되였다고 한다.

2007년 학교에 입학하여 지난해와 올해 전국적인 청소년체육학교 휘거청소년급경기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12살난 전선영학생은 앞으로 꼭 금메달로 아버지장군님께 기쁨드리겠다고 하였다.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아름다운 꿈과 미래를 안겨주는 어버이 그 사랑을 온 세상에 목청껏 노래하려는 마음안고 온 빙상관이 축전준비로 세차게 끓고있었다.

축전의 성과적보장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재능있는 휘거지도교원들인 장효영, 고옥란, 김정심동무들도 모두 사랑의 은반과 더불어 성장하였다.

재능있는 휘거선수들을 많이 키워낸 장효영동무는 이렇게 말했다.

《어버이사랑이 깃든 우리 빙상관에서 수많은 청소년들이 나라의 역군으로, 미래의 빙상체육명수로 자라나고있습니다.》

우리는 빙상관을 나서 옆에 자리잡은 훈련관을 찾았다. 청소년학생들은 물론 어른들도 스케트타기에 여념이 없었다. 겨울철방학기간에 스케트타기를 배우러 왔다는 어느 한 소학교의 김수경, 림현정학생, 보통강구역에 산다는 중학교학생들인 오충심, 진송희학생을 비롯한 청소년학생들이 웃음꽃을 함뿍 피워올리며 스케트타는 모습이 즐겁게 안겨왔다.

훈련관을 나서는 우리의 눈앞에 하늘로 날아오를듯 한 빙상관의 모습이 새로운 의미를 새겨주며 안겨왔다. 우리는 그려보았다. 인민을 위한 어버이사랑에 받들려 세계를 향해 더 힘차게 날으는 우리 선수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장하고 행복한 모습을.

본사기자 정 영 화

이채로운 겨울철의 버섯수확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관리소에서 버섯수확이 한창이다.

정일봉기슭의 소백수가에 하얀 서리꽃이 활짝 피여나는 계절에 이곳 관리소의 버섯재배실에서 먹음직스러운 느타리버섯이 생산되여 이 고장 인민들과 답사자들에게 기쁨을 주고있다.

소장, 부소장을 비롯한 관리소의 일군들은 자체의 힘으로 버섯재배기지를 꾸리고 백두산의 독특한 정취를 자아내는 버섯을 생산하여 답사자들과 종업원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관리소에서는 여름에는 버섯원천이 많은 조건에서 겨울에 신선한 버섯을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 로력과 원료타산을 구체적으로 하였다.

후방부서일군들과 재배공들은 재배원료, 재배규모, 생산조건 등에 따르는 버섯종류를 선택한 다음 종균생산과 재배공정을 과학기술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알맞는 온도와 습도, 공기조건이 보장되도록 물주기와 자리바꿈을 하면서 관리를 실속있게 하였다.

이들의 노력에 의하여 이 고장에 흔한 넓은잎나무톱밥과 벼겨를 원료로 생산된 느타리버섯은 단백질이 많고 독특한 맛을 가지고있어 호평을 받고있다.

관리소에서는 지난해부터 버섯을 대량적으로 수확하여 답사자들과 관리소종업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올해에도 관리소에서는 많은 버섯을 생산하여 백두산밀영혁명전적지답사자들과 종업원세대들에 공급해주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특파기자

우리 인민의 설맞이풍습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민속적으로 전해오는 좋은 관습들에는 민족의 고상하고 아름다운 정신적풍모와 정서가 반영되여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새해의 첫날인 설을 가장 큰 명절로 즐겁게 쇠여왔다.

설은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맞는 새해 첫 명절이였던것만큼 특별히 더 잘 준비하였으며 보다 성대하고 즐겁게 쇠였다.

우리 인민들은 설날을 앞두고 명절준비를 착실히 하였다. 설날이 가까와오면 녀인들은 식구들이 설날에 입을 옷인 설빔을 새로 짓거나 입던 옷을 깨끗하게 손질하여 준비해놓았다. 설을 거뜬한 마음으로 즐겁게 맞이하기 위하여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맛있는 설음식들을 준비하였다.

설날이 오면 먼저 돌아간 조상들에게 인사를 드린 다음 웃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였다.

우선 집안의 웃사람순서로 차례차례 세배를 드렸으며 다음에는 마을의 나이많은 어른들, 스승들을 찾아가 세배를 드리였다.

흔히 세배는 설날에 많이 하였으나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 정월대보름명절전에 하면 례의를 지키는것으로 되였다.

설날 로인들은 설날옷을 곱게 차려입고 세배를 하는 귀여운 손자, 손녀들에게 간단한 례물들을 주고 어리광도 받아주면서 기뻐하였다.

설인사를 할 때에는 상대방이 새해에도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되기를 바라는 인사말을 주고받았는데 이것을 덕담이라고 하였다.

설날에는 또한 설음식을 잘 차려놓고 가족친척이 모여 나누어먹었으며 설인사를 하려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대접하였다.

설날음식에서 빠져서는 안되는것은 떡국이였다.

설날이면 떡국을 한그릇 먹는것이 하나의 풍습으로 되였었다.

떡국은 멥쌀가루를 쪄서 긴 가래떡을 만들어 엽전만 하게 썰어 고기국에 넣어 끓인것이다.

떡국은 예로부터 꿩고기를 넣고 끓여야 제격이라고 하였는데 꿩고기가 흔하지 않았으므로 대체로 닭고기를 넣고 끓이였다.

설날에는 《세주불온》이라고 하여 데우지 않은 술을 한잔 마시였는데 이와 같은 관습에는 정초부터 과음을 삼가하며 봄철농사준비를 부지런히 다그치려는 우리 인민의 근면성이 반영되여있다.

설명절을 특별히 이채롭게 한것은 민속놀이였다.

설날에는 남녀로소 가림없이 모여 윷놀이를 하기도 하고 녀성들은 널뛰기를 하면서 즐기였다. 한편 아이들은 연띄우기와 썰매타기, 바람개비놀이 등을 하면서 명절을 즐기였다.

우리 인민의 전통적인 설맞이풍습은 오늘 당의 사랑과 은정속에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빛나게 계승발전되고있다.

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장 성 남

연극을 실감있게 보려면

연극은 배우들의 말과 행동을 기본형상수단으로 하여 극작품에 묘사된 생활을 관중을 상대로 무대우에 재현하는 무대예술의 한 형태이다.

연극에서 희곡과 배우, 무대와 관중은 필수적인 기본구성요소이다. 연극에 담겨진 내용을 잘 파악하려면 등장인물들의 대사에 중점을 두고 판람하여야 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영화가 행동의 예술이라면 연극은 대사의 예술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연극에서 기본은 대사이다. 연극은 인간과 그의 생활을 대사를 기본으로 하여 반영하기때문에 주인공과 주요인물들의 대사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연극에서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하여 인물들의 극적관계가 맺어지고 그들의 대사속에서 인물들의 성격이 드러나며 작품의 주제사상적내용이 밝혀지게 된다.

연극은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을 통하여 무대와 관중과의 일정한 거리속에서 인간과 그의 생활을 직접 펼쳐보여주는것으로 하여 등장인물들의 내면세계와 구체적인 심리적움직임까지도 대사로 표현하게 된다.

연극에 담겨진 내용을 잘 파악하려면 인물들의 행동에도 주목을 돌려야 한다. 연극은 대사의 예술인 동시에 행동의 예술, 생활의 예술이다. 영화에서처럼 연극에서도 인물들의 말없는 행동이 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줄 때도 있다.

연극에서 배우는 무대라는 제한된 공간속에서 행동할뿐이지 생활적인 연기, 산 연기를 한다. 등장인물에게서 대사와 행동이 잘 결합될수록 인물의 사상감정과 내면심리세계는 더욱 정확히 그려지게 되며 관중들에게 깊은 인상과 감흥을 주게 된다.

이러한것으로 하여 연극에서 배우는 관중과의 산 교제를 한다고 하는것이다.

연극은 실지생활을 무대우에 집중화, 집약화하여 그리는 예술이다. 때문에 연극을 실감있게 보려면 인물들의 대사와 행동을 무대미술과 음악을 비롯한 여러 형상요소들과의 밀접한 련관속에서 감상해야 한다.

평양연극영화대학 방 성 인

새 기술소식 몇가지

간석지목화재배

자료에 의하면 어느 한 나라에서 토양의 소금기가 높아 작물이 자라기 어려운 간석지에서 소금기견딜성이 센 목화를 재배하는데 관심을 돌리고있다.

벼는 토양의 소금기가 0.1%만 되여도 수확고가 떨어지지만 목화는 소금기가 0.2%인 토양에서도 잘 자랄뿐아니라 수확고와 품질이 높다고 한다. 이로 하여 목화는 간석지재배에 적합한 작물로 인정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목화재배를 간석지리용방도의 하나로 보고 여러 지방의 간석지들에서 목화를 많이 재배하고있다고 한다.

간석지목화재배를 위하여 취하고있는 대책들가운데서 주목되는 점은 우선 봄과 겨울에 물을 대는 합리적인 물대기방법과 작물짚이나 록비작물로 토양을 피복하는 토양피복방법을 받아들여 간석지목화밭의 소금기를 낮추고있는것이다.

다음으로 간석지목화재배에서 소금기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소금물로 종자를 처리하는 방법, 고랑파종방법, 영양단지모기르기기술 등과 같은 여러가지 재배기술들을 받아들이고있는것이다. 이밖에 비료시비를 과학적으로 하여 목화의 생육상태를 좋게 함으로써 소금기피해를 줄이고있다.

간석지목화밭에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면 지력을 높이면서도 토양을 푸석푸석하게 하여 토양의 물기보존능력을 높임으로써 소금기피해를 줄이고 개체당 열매가지수와 아직 피지 않은 목화의 열매수를 늘일수 있다.

타격회전식착정기

최근 중소규모로천광산에서 발파구멍을 뚫는데 천공속도가 빠르고 각이한 암석조건에 리용할수 있는 현대적인 타격회전식착정기를 받아들이고있다.

암석에 구멍을 뚫는데 흔히 쓰는 착암기에서는 회전기구와 타격기구가 정대의 뒤부분에 있지만 타격회전식착정기에서는 타격기구가 정머리와 일체화되여 정대앞부분에 놓인다.

그러므로 타격회전식착정기는 회전기구가 뚫는 구멍밖에서 정대를 회전시키고 정머리가 달린 타격기구가 구멍안으로 들어가면서 압축공기를 동력으로 하여 구멍을 뚫게 되여있다.

현대적인 타격회전식착정기는 공기압축계통, 유압계통, 전기 또는 내연기관계통이 하나의 동력계통으로 일체화되여있으므로 조작이 편리하고 에네르기소비가 적으며 지능조종체계로 천공과정을 자동조종하게 되여있다. 이 착정기는 천공속도가 빠르고 뚫는 구멍의 편차가 작은 우점을 가지고있다. 이밖에도 총질량이 회전식착정기의 1/2~1/3밖에 안되며 기동속도는 거의 2배나 빠르다.

타격회전식착정기는 크게 동체, 천공탑, 돌가루처리계통, 조종계통, 무한궤도식주행장치로 되여있다. 이 착정기에서는 공기압축기로부터 정대중심구멍을 통하여 공급된 압축공기가 타격기구에서 피스톤의 왕복운동을 보장하고 정머리에 뚫어진 배출구로 나오면서 구멍안의 돌가루를 불어낸다.

타격회전식착정기에서 핵심부분은 타격기구와 정머리이다.

본사기자

새해에 즈음하여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일군들을 위한

연회마련

【베이징 1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새해에 즈음하여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2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일군들을 위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왕가서부장, 류결일부부장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일군들이 초대되였다.

지재룡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호금도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중친선의 끊임없는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이에 앞서 18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는 중국외교부 일군들을 위한 연회를, 21일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에서는 료녕성인민정부 대외사업부문 일군들을 위한 연회를 마련하였다.

습지와 그 보호

생태계가 호상 조화되여있고 생명체의 생존과 활동에 없어서는 안될 물을 풍부히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생물다양성견지에서나 인간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습지는 동식물상이 매우 다양할뿐아니라 특히 물새와 철새들의 서식지, 도중체류지로서 생물다양성보호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습지는 물의 자연정화기능, 물순환체계 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자연생태계의 유지에서도 큰 역할을 한다. 큰물과 가물을 조절하여주고 인간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민물의 조성과 공급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륙지와 바다의 생태계를 련결해주기도 한다.

이로부터 습지를 자연의 신장이라고도 한다.

습지는 경제와 문화, 과학연구, 관광 및 휴양 등 다양한 생태적봉사들을 제공하는 등 커다란 가치를 가진다.

세계적으로 문화휴양지들과 관광지들 대부분이 해안과 호수, 강을 낀 습지지역에 자리잡고있으며 세계인구의 40% 이상이 바다가연안을 비롯한 습지지역에서 살고있다. 이러한 기능들을 수행하는것으로 하여 습지를 생명과 문화의 원천이라고 하고있다.

이렇게 중요한 습지가 경제개발, 오수 및 폐설물에 의한 오염, 지구온난화와 산림파괴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하여 계속 줄어들고있다.

이로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면적을 늘이며 습지를 더 잘 보호관리하기 위한 활동들이 진행되고있다.

매해 2월 2일은 세계습지의 날이다.

유엔은 올해를 산림의 해로 규정한데 이어 올해 세계습지의 날의 주제를 물과 습지를 위한 산림으로 제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보호와 그 장성의 중요성과 의의를 강조하고 이 사업에 전세계가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습지를 개간하여 얻는 경제적리득보다 습지자원을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얻는 리득은 무려 160배나 된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여러곳에 습지보호구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다.

보호구들에서는 해마다 봄, 가을에 날아드는 철새들의 마리수와 그 생태학적변화, 철새들의 마리수를 늘여나가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한 자료조사 및 연구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조선자연보호련맹 중앙위원회 박 웅

분렬의 비극을 끝장낼 철석의 신념을 안으시고

지금 우리 민족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내외반통일세력의 책동은 의연히 악랄하다. 그럴수록 반통일분자들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겨레의 열망과 의지는 더욱 굳세여지고있다.

겨레의 힘찬 자주통일대행진, 비상히 높아진 민족단합의 기운,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는 이 격동적인 현실은 조국통일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을 지니시고 통일애국위업실현에 온갖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반세기이상에 걸치는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더는 늦출수도 미룰수도 없는 민족의 사활적요구이며 지상의 과업입니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숙원이다.

외세에 의한 민족과 국토의 분렬은 우리 겨레 그 누구에게나 헤아릴수 없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분렬로 하여 우리 겨레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그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낮이나 밤이나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온 겨레를 부강번영하는 통일조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고계신다.

지금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체71(1982)년 9월 9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앞에서 하신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이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은 애국의 마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은 조선민족으로서의 자격도, 조선에서 살 자격도 상실한 목석이라고, 민족의 분렬을 더없는 아픔으로 여기면서 조국통일에 마음과 뜻을 둔 사람이라야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있다고 말할수 있으며 민족의 분렬을 가장 큰 아픔으로 생각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사람만이 애국자이고 혁명가라고 엄숙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우리 일군들은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모든 일군들이 언제나 조국통일을 생각하면서 일해야 하며 일군들의 모든 사색과 활동은 조국통일과 잇닿아있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뜻깊은 명절날 잠시의 휴식도 잊으시고 관심을 두셔야 할 그 하많은 일들에 앞서 조국통일문제에 대해 심려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장군님께서 민족의 분렬과 그로 하여 겨레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가슴아프시였으면 조국통일에 무관심한 사람은 목석이라고 말씀하시였겠는가. 그 말씀을 새겨볼수록 애국애족의 큰뜻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온갖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이 숭엄하게 안겨온다.

나라의 분렬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그대로 두고서는 그 누구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 애국애족의 마음을 가진 조선사람이라면 조국통일위업에 몸바쳐나서야 한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주체84(1995)년 7월 8일을 잊지 못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이날 어버이수령님의 서거 한돐에 즈음하여 수령님을 추모하기 위해 평양에 온 남조선의 통일맞이 7천만겨레모임 대표이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인 문익환목사의 부인 박용길녀사를 만나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뵙는 순간 박용길녀사는 남편의 죽음앞에서도 묻어두었던 눈물이 쏟아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고령의 몸으로 어려운 길을 와주어 고맙다고, 문목사가 온줄로 알고 남쪽의 4천만 인민이 온줄로 알겠다고, 먼저 가신분들의 뜻을 받들어 나라의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하겠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이윽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던 통일을 위해 **김정일**이 있다고, 7천만에게 통일을 안겨주지 못하면 **김정일**이 아니라고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새겨안을수록 그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지향을 한몸에 체현하시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애국위업에 모든것을 바치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장엄한 선언이였다. 박용길녀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통일선언에서 단일민족의 밝은 미래를 보았으며 통일조선의 봄은 멀지 않았다는 확신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되였다.

그렇듯 나라의 통일을 민족최대의 과제로 내세우시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기에 피눈물의 바다에서 우리 겨레를 일으켜세우시고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짓부시며 조국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대용단에 의해 주체89(2000)년 4월 북남사이에 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6월에는 민족분렬사상 처음으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였으며 자주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이 채택발표되게 되였다. 그에 이어 주체96(2007)년에 북남수뇌상봉이 또다시 마련되고 10.4선언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가 열리게 되였다.

겨레의 마음속에 통일에 대한 신심과 열망을 북돋아주신 그이께서는 6.15통일시대가 흐르는 오늘에도 온 민족이 북남공동선언을 통일의 대강으로 높이 들고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주체97(2008)년 9월 5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공화국창건 60돐을 맞으며 력사적인 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불패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다》**를 발표하시여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 할 기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라고 언명하심으로써 우리민족끼리리념밑에 북과 남의 힘을 합쳐 조국통일위업을 완수하시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분렬주의세력의 책동으로 북남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던 2009년 8월 평양을 찾아온 남조선 현대그룹 회장일행을 오랜 시간 접견해주시고 중단된 금강산관광재개며 개성공업지구활성화문제를 비롯한 그들의 소청을 기꺼이 다 들어주신 그이의 대범한 아량과 도량은 온 겨레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단합하여 통일의 지름길을 열어나가도록 하시려는 드팀없는 의지의 발현이였다. 격동의 대고조속에 날과 달마다 큰 변이 일어난 지난해 9월의 어느날에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현지지도의 강행군길에서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모두가 조국통일을 위해 적극 투쟁하도록 해야 한다고 고무하시였다.

그 어떤 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지향과 념원을 가로막을수 없으며 북남공동선언리행이 빈말로 끝나서는 안된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대불변의 의지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는 조국통일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지금 이 시각도 우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기 위해 선군령도의 멀고 험한 길을 이어가고계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 **김정일**장군님, 그이의 탁월한 사상과 정력적인 령도, 숭고한 덕망이 있어 우리 겨레는 이 땅에 반드시 통일의 그날을 안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라설하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애국애족의 정치

우리 공화국의 기상에 찬탄을 금치 못하는 남녘겨레의 마음속에는 위대한 선군정치로 세기적변혁을 안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정이 차넘치고있다.

광주의 한 대학생은 선군정치에 대한 찬탄을 금치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북미대결에서 북이 련승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남민중은 이북의 선군정치의 위력과 고마움을 페부로 절감하고있다. 이 땅의 평화가 북의 선군정치에서 오고있음을 잘 알고있는 민중의 마음은 더욱 북으로 향하고있다. **김정일**령수님을 모시여 평화도 미래도 담보되고있다고 우리 민중은 굳게 확신하고있다.》

고려대학교의 한 교수도 정세토론도중에 《민족이 대참화를 당할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켜 우리 조선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준것도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이고 분렬의 아픔에 신음하는 겨레에게 새 세기 통일의 리정표인 6.15공동선언을 안겨주고 민족자주통일의 새 력사를 펼쳐준것도 장군님의 선군정치이다. 조선민족에게 분렬을 강요한 외세의 간섭과 전쟁책동을 막고 자주통일을 이룩하자면 민족의 힘이 강해야 한다. 조선민족의 힘은 다름아닌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에 있다.》라고 자기의 심정을 터놓았다고 한다.

남녘땅에서는 선군령장 **김정일**장군님을 무한히 신뢰하며 그이의 선군정치를 옹호하는것이 막을수 없는 대세, 민심의 흐름으로 되고있다.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주력으로 하여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선군령도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날로 뜨겁게 분출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선군지지옹호의 열기는 인터네트를 통해 활발히 전개되고있는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의 선군정치선전활동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 남측본부,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련합을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네트홈페지에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글들을 련이어 싣고있다.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는 인터네트홈페지에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는 선군정치로 21세기 자주화운동을 이끌어나가고계신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글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는 조국통일의 새로운 길을 열어놓았다고 하면서 《평화와 민족단합은 결국 선군총대로 지켜지고 마련되고있다. 지금 선군사상, 선군정치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단지 학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세계자주화운동의 미래에 대한 갈망에 기초한것으로서 이것은 선군사상, 선군정치가 새로운 시대사상, 시대정치로 되였음을 보여주고있는것이다.》라고 썼다.

남조선민권연구소, 농민회총련맹 등의 단체들도 선군정치의 본질과 정당성, 독창성과 생활력에 대해 서술한 글들과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민족의 존엄을 온 세상에 떨치시고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높이 칭송한 글들을 인터네트에 게재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인민군부대들과 인민경제 중요단위들을 끊임없이 현지지도하고계시는데 대한 소식에 접한 남조선의 자주학회의 한 성원은 **《김정일**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는 이북에 위대한 현실을 펼쳐놓았다. 이북이 자주로 존엄을 떨치고 자립으로 발전하는 참다운 주체의 나라로 그 위력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치고있는것은 바로 천출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모시고있기때문이다.

정녕 걸출하신 그분께서 높이 추켜드신 선군의 기치따라 막강한 군력과 천만군민의 일심단결로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이북은 필승불패이다.》라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남조선의 한 통일인사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남과 북은 갈라져있어도 우리 민중이 통일에 살고 평화에 사는것은 선군의 힘이 있기때문이다. 선군정치는 우리 민족을 재난으로부터 수호하기 위한 정의이며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민족의 존엄과 생존을 담보해주는 애국이다.》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고 조국의 통일을 담보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한마음한뜻으로 받들어 이 땅에서 전쟁의 불구름을 가셔버리고 통일된 삼천리강토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가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신념과 의지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강렬해지고있다.

본사기자 김현철

제12차 조국통일범민족련합 공동의장단회의 진행

【평양 1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제12차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공동의장단회의가 29일 북과 남, 해외사이에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북남대결상태를 해소하고 조국의 평화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운동을 적극 추동하기 위한 범민련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보고가 있었다.

보고는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0돐, 10.4선언발표 3돐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범민련이 북남선언들을 철저히 고수리행해나가려는 드팀없는 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과 전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통하여 공화국은 북남사이의 당국을 포함한 정당, 단체들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제의하고 북남관계개선을 위한 성의있는 조치들을 취하였다고 보고는 지적하였다.

보고는 이러한 제의와 조치들은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고있으며 오늘의 대결국면을 타개해나갈수 있는 실천적방도로서 내외의 커다란 지지와 찬동을 받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올해에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는데서 범민련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에 대하여 보고는 지적하였다.

보고는 범민련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변함없이 들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범민련은 6.15시대에 추진되여온 선언리행을 위한 모든 활동들을 재개하고 그것이 전민족적운동으로 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보고는 지적하였다.

보고는 범민련이 북남선언을 부정하고 통일애국활동을 가로막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말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범민련은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의 문이 조속히 열리고 그것이 민족의 평화와 공동번영, 조국통일위업실현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것이라고 보고는 지적하였다.

보고는 범민련이 북남선언들을 존중하고 실천해나가려는 해내외의 모든 정당, 단체, 인사들과 굳게 단결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함께 손잡고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할것이라고 보고는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담화

얼마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6.15북남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평양을 방문하였던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가 《당국의 승인없이 방북》하였다느니, 《북에 동조하여 체제선전에 리용》되였다느니 하면서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그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다.

또한 지난해 6월 남조선의 진보련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3명의 통일인사들을 《특수잠입탈출》, 《통신회합》, 《지령수수》의 어마어마한 감투를 씌워 구속하였으나 아무러한 증거를 쥐지 못하게 되자 북의 주장에 동조하였다는 터무니없는 죄명을 씌워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였다.

이것은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와 량심, 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마구 짓밟는 극악한 인권유린행위이고 동족사이의 대결을 격화시키는 용납 못할 파쑈적폭거이다.

한상렬목사의 평양방문목적과 전기간의 활동은 북남공동선언을 고수리행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지극히 의롭고 정당한것으로서 결코 죄로 될수 없다.

오히려 죄는 북남공동선언을 전면부정하고 동족대결과 전쟁위기를 몰아온 반통일세력에게 물어야 할것이다.

남조선의 반통일세력들이 북남공동선언을 짓밟고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지 않았더라면 한상렬목사가 구태여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어려운 길을 택하지도 않았을것이다.

최근 우리의 적극적인 대화노력에 온 겨레가 뜻과 목소리를 합쳐나가고있는 때에 피뢰법원이 우리와 련결시켜 통일인사들에게 악형을 들씌운것은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 대화를 파탄시키려는 불순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파쑈와 대결이 란무하고 통일인사들에 대한 가혹한 정치적박해와 탄압이 계속되는 속에서는 그 어떤 참다운 인권도 북남관계의 진전도 기대할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동족대결정책을 철회하고 구시대적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철폐하여야 하며 통일인사들에게 들씌운 부당한 형벌을 취소하고 그들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

만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배치되게 북남사이의 접촉과 래왕을 계속 가로막으며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탄압책동에 매달릴 경우 내외의 더 큰 규탄과 배격에 부딪쳐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주체100(2011)년 1월 29일
평양

조선학교문제해결을 위한 련대투쟁 전개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제도적용실현을 위한 일본시민들과 재일동포들의 련대투쟁이 계속 전개되고있다.

15일 《조선학교에도 차별없이 지원적용을 요구하는 네트워크아이찌》가 일본의 나고야시에서 긴급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에는 일본의 각계층 시민들과 조선고급학교 학생들,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보고와 발언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발언자들은 일본수상이 조선학교에 지원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수속을 정지시킨데 대해 언급하고 이것은 명백한 차별행위,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일본시민들과 재일동포들이 서명운동, 거리선전, 학습회, 집회와 시위, 일본정부에 대한 요청활동을 벌려왔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일본정부가 하루빨리 조선학교지원문제해결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제도의 즉시적용을 요구하는 요청문이 채택되였다.

이날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은 선전활동을 벌렸다.

19일 오까야마국제교류쎈터에서는 조선학교지원제도적용문제와 관련한 강연회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일본정부의 민족차별행위에 분노를 표시하면서 조선학교에 차별없이 고등학교지원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어 일본수상과 내각관방장관, 문부과학상앞으로 보내는 요청서가 채택되였다.

본사기자

북남대화에 나설것을 요구

재미자주사상연구소 소장 김현환이 21일 론평을 발표하여 남조선당국이 북남대화에 하루빨리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론평은 북이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 등을 통해 전쟁을 막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북남대화를 제의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최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국제적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있다고 하면서 집권유지를 위해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려던 남조선당국의 기도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였다고 론평은 지적하였다. 론평은 대화냐 전쟁이냐 하는 갈림길우에서 남조선당국이 조선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한 북남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남조선당국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커다란 재앙에 부닥치게 될것이라고 론평은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교수의 질을 높인 비결

경암제1중학교 일군들의 사업에서

올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교육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전국의 교육기관들에서는 교육의 질제고에 이바지하는 좋은 경험들이 수많이 창조되고있다.

얼마전 경암제1중학교를 찾은 우리는 교장 인민교원 김혜선동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원들의 자질향상사업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점을 찾아볼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원들에게 맡겨진 기본혁명과업은 교수사업이며 교수사업을 잘하는것은 교원들의 첫째가는 임무입니다.》

이곳 일군들의 사업에서 주목되는것은 발전하는 교육현실에 맞게 새롭고 진취적인 방법론을 적극 탐구하여 교원들의 교수수준제고를 위한 사업들의 실효성을 부단히 높이고있는것이다.

학교에서 조직진행하고있는 분과의 날, 교재연구토론의 날 운영과 보여주기교수, 교육방법연구토론회, 교수경연, 자질향상총화 등은 교원들의 교수수준을 높이는데 좋은 사업들이였다.

하지만 학교일군들은 지금까지 진행해온 방법으로써는 이러한 사업의 실효성을 응당한 높이에서 보장할수 없다고 보았다.

과학과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산업시대와 더불어 지식의 갱신주기가 짧아지고 정보기술에 의거한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이 늘어나고있는 현실은 교원들이 폭넓고 깊은 지식과 함께 보다 참신하고 과학적인 교수방법을 소유할것을 요구하였다.

교원들이 제한된 시간에 더 많은 지식과 교수경험을 소유하게 하자면 교수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방법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혁신하여야 하였다.

학교일군들은 교수합평회조직부터 새롭게 하였다. 교수합평회를 새로운 교수방법을 탐구할뿐아니라 서로 배우면서 깊은 지식과 풍부한 교육경험을 쌓는 중요한 공간으로 보았던것이다.

학교에서는 지난 시기의 경험에 기초하여 교수합평회를 분기, 월, 주별로 계획화하는것과 함께 임의의 시간에 합평회를 조직할수 있게 교무행정사업질서를 새롭게 세웠다.

다시말하여 교수참관이나 교수경연 등을 통하여 교원의 교수에서 반드시 고쳐야 할 점이 있거나 따라배워야 할 우점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날로 교수합평회를 조직하였다. 고정적인 형식과 틀을 떠난 격식없는 합평회였다. 이러한 합평회는 한주에 여러차례 진행될 때도 있었다.

실효가 있었다. 교원들의 교수에서 나타난 부족점은 제때에 극복되고 좋은 교육방법들은 빠른 시간에 일반화되였다.

교원들호상간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지니 교수합평회의 질 또한 높아졌다.

학교에서는 교수경연과 교육경험토론회를 교원들이 다 참가한 가운데 진행하기도 하고 전공과목별로 조직하기도 하는 등 교수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새롭고 독특한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였다.

이에 앞서 이곳 일군들이 먼저 해결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교원들에게 교육실무지식을 충분히 습득시키는 문제이다. 수재양성체계에 망라되여있는 학교에는 공과부문 대학출신의 교원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소유하고있었지만 사범교육수준은 그리 높지 못하였다. 그러다나니 소유한 지식을 교수에 원만히 활용하지 못하였으며 교수의 질제고에서도 응당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있었다.

학교에서는 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학교자체로 해마다 교원들의 실무강습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강습기간은 새해 첫 재교육강습이 진행되기 전 3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강습에서는 공동사설과 당정책학습 그리고 교수요강작성방법과 교육술어해설, 교육과정안작성 등 교수사업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폭넓고 깊이있게 취급하였다.

강습을 통하여 교원들은 교수방법탐구를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할수 있었다.

뿐만아니라 실무강습을 받고 재교육강습에 참가하니 그 실효성이 높아졌다. 강습기간을 새해 첫 3일로 정한 원인이 여기에 있었다. 교수의 질제고를 위한 사업의 실리보장에도 좋았다.

학교에서는 신임교원대렬이 늘어나고 교육수준이 급속히 높아지는데 맞게 실무강습의 질을 더욱 높이였다.

이 과정에 교원들의 자질과 교수의 질제고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이룩되였다.

학교에는 강좌장들인 리명근, 김일훈동무를 비롯하여 30대에 쟁쟁한 실력가로 평가받는 교육자들이 많다. 20대에 강좌장으로 성장한 김은경동무는 전국적으로 교수를 잘하는 교원으로 손꼽힌다.

강좌장 정진희동무가 공훈교원의 영예를 지니고 한해에 10여명에 가까운 교원들이 10월8일모범교수자로 자라났으며 장영선교원이 10여개의 실험기구 및 교편물창안증을 소유한 비결은 학교일군들이 교원들의 교수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조직진행한데 있었다.

지칠줄 모르는 창조적사색과 옳바른 방법론, 바로 이것이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수의 질을 부단히 높일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열쇠였다.

짧은 기간에 교수의 질을 부쩍 높여 높은 교육성과를 이룩해나가고있는 이곳 일군들의 사업경험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있었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 그것은 새로운 방법론을 탐구하며 끊임없이 혁신하자면 학교일군들의 실력이 그만큼 높은 수준에 있어야 한다는것이다.

《일군들이 어떤 관점과 립장, 얼마만한 실력과 안목을 지녔는가에 따라 방법론이 달라지고 교수의 질이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원 전복순동무의 말은 우리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은남

방목지에 새겨가는 창조의 자욱

신천사슴목장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리롭고 유익한 동식물들을 대대적으로 보호증식시켜야 합니다.》

새소리 유정한 산골의 아침은 사슴떼를 몰아가는 방목공들의 청아한 목소리로부터 밝아오는듯싶었다.

무리에서 떨어지는 사슴을 찾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는 그 목소리의 주인들을 따라 우리는 방목지에 올랐다.

상쾌한 새벽공기를 마시며 사슴무리를 보느라니 기분이 절로 났다. 한골짜기 또 한골짜기 밟을수록 산천에 바쳐가는 이들의 자욱이 력력히 어려왔다.

낫으로 잡관목을 헤치면서 사슴들의 앞길을 틔워주기도 하고 상할세라 조심도 해야 하는 방목길은 가다가 힘들면 돌아서도 되는 길이 아니였다.

사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목공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온종일 산판을 걷는다.

하루 보통 수십리를 걷는다니 어림잡아도 1년이면 2만여리는 걷는셈이였다.

그 나날엔 힘겨웠던 가지가지의 일들이 있었다고 한다.

잃어버린 한마리의 사슴을 찾아 깊은 밤에 몇십리를 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방목길에서 상한 사슴을 담가에 싣고 수십리를 되돌아오기도 한 방목공들이였다.

방목지의 한 구역을 돌아설 즈음에 지배인 리윤희동무가 손을 잡아 우리를 이끌었다.

우리가 닿은 곳은 사슴우리였다.

밋밋한 등성이를 이루며 흘러내린 주변지세와 어울리게 단층으로 아담하게 지은 사슴우리는 지난해에 그들이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것이였다.

더 많은 사슴을 길러내자면 위생문화적으로 정결한 우리가 있어야 하였지만 걸리는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읍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목장이 위치하고있어 도움을 받기도 힘들었다.

그렇다고 그들은 주저앉지 않았다.

리윤희, 류승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부터 앞장에 섰다.

사슴방목을 하면서 해야 하는 어려운 공사였지만 그들은 짧은 기간에 많은 량의 돌을 산판에 끌어올려 사슴우리 등을 번듯하게 지었다.

그뿐이 아니였다.

목장에서는 연구사들과 지혜를 합쳐 저항성을 높여주는 새로운 약을 만들어냄으로써 사슴의 폐사률을 훨씬 줄이였다.

하나의 자랑을 하고는 또 다른 자랑을 이어가는 지배인의 이야기는 해가 지도록 끝이 있을 상싶지 않았다.

돌아볼수록 그리고 들을수록 인민의 건강증진에 더없이 좋은 귀한 약재를 하나라도 더 마련하자고 땀흘리며 열정을 바쳐온 그들의 헌신적노력이 헤아려졌다.

저녁녘의 해빛은 산판을 붉게 물들이며 고루 비쳤다.

문득 얼룩점들이 다분한 한떼의 사슴무리가 보였다.

방목지에서 돌아오는 길이였다.

인민의 기쁨이 커가는 산천의 아름다운 저녁에 우리는 방목지를 떠났다.

본사기자 방경찬

승리의 노래 높이 부르며

피현위생자기공장에서 노래를 통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부단히 높여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노래보급책임자들의 역할을 높이면서 노래보급 및 해설사업을 잘 짜고들어 일터마다에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더욱 높이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이곳 종업원들은 노래 《승리의 길》, 《높이 들자 붉은기》,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 등을 즐겨부르며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더욱 빛내이고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갈 열의에 넘쳐있다.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 관철을 위한 총진군길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승리의 노래, 투쟁의 노래 높이 부르며 혁명적열정과 필승의 신심에 넘쳐 맡은 일에서 집단적혁신을 세차게 일으켜가고있다.

로농통신원 백광수

북침전쟁을 노린 미군기동타격무력의 전진배비책동

새해벽두부터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군기동타격무력이 대대적으로 전진배비되고있다.

외신보도에 의하면 지난 11일 미 핵항공모함 《칼빈손》호가 남조선의 부산에 입항하였다. 또한 이 핵항공모함전단에 소속된 순양함 《방커힐》호는 부산에, 순양함 《그리들리》호와 《스톡데일》호는 경상남도 진해항에 기여들었다.

《칼빈손》호핵항공모함전단은 초대형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를 대신하여 현재 미제7함대에 배속되였다고 한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국은 일본에도 미제7함대소속 기동타격무력을 들이밀려 하고있다. 미제는 지난 조선전쟁시기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날강도적인 군사작전행동을 감행할 당시 미제7함대의 병참, 보급, 중계, 출격기지의 하나로 일본의 기지들을 리용하였었다.

동북아시아에 대한 대규모미군기동타격무력의 전진배비가 새로운 조선전쟁준비책동의 한 고리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미국이 미군기동타격무력을 이 지역에 전진배비하고있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우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준비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자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을 도발하려는것은 미제의 변함없는 흉계이다. 이로부터 미제는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전진배비하고있다. 미제호전세력들은 사전에 수많은 기동타격무력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배치하였다가 임의의 시각에 그것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감행하려 하고있다. 《작전계획 5027우발계획》, 《작전계획 5030》 등에 의하면 미제는 《유사시》 5 000여문의 포, 60여척의 전투함선, 수백대의 전투기, 수많은 각종 미싸일, 미제7함대 등을 동원하는 한편 하와이, 괌도, 일본본토와 오끼나와, 미국본토의 무력을 포함한 69만명의 침략군을 증원군으로 조선전선에 들이밀어 우리 공화국을 립체적으로 타격하려 하고있다. 지난해 미국방장관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군이 초기에 해공군을 투입하고 추가로 지상군을 동원하겠다고 망발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군기동타격무력이 이 지역에 대대적으로 전진배비되고있는것은 그에 따른것이다.

미군기동타격무력의 전진배비책동은 미제의 침략적인 대아시아전략과도 관련된다.

최근시기 미국출판물들은 현 미행정부고위인물들이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에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고있다고 하면서 《미행정부의 대아시아전략에서 중심은 강력한 미군무력의 전진배비》이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미국이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진보적인 아시아나라들을 반대하는 침략적대아시아전략을 계속 추진시키며 이 전략수행에서 미군기동타격무력의 전진배비를 중시하고있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새 세기에 들어와 《9.11사건》이 터지고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전쟁이 벌어지면서 아시아지역의 전략적지위와 의의는 더욱 부각되였다. 이런 조건에서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싼 대국들의 쟁탈전이 격화되였으며 미국은 대아시아전략수행에 더욱 낯을 돌리게 되였다.

미국의 대아시아전략의 기본은 힘으로 이 지역에 대한 다른 대국들의 영향력과 세력권확대를 견제하고 미국독주의 지배주의질서를 세우는것이다. 미국은 이를 강력한 전진배비무력으로 뒤받침하려 하고있다. 여기에서 미국은 남조선과 일본을 보다 중시하고있으며 강력한 전진배비무력을 이곳에 구축하고 그것을 리용하여 아시아지역에 대한 지배주의야망을 실현하려 하고있다. 남조선은 미제의 대아시아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전초선으로 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을 전방기지로 하여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제압하고 나아가서 대국들을 견제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려 하고있다. 미국의 호전세력들은 이와 같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우리 공화국이 조선반도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있다는 그릇된 여론전을 펴고있다. 그들은 우리 공화국의 그 무슨 《위협》에 대하여 떠들면서 미군이 《평화와 안전의 요소》로서 남조선과 일본 등에 계속 전진배비되여있어야 한다고 하고있다. 이것은 저들의 침략적목적을 가리우기 위한 궤변이다.

조선반도정세의 불안정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미국에 의하여 조성되고있다. 남조선과 일본에 전진배비되여있는 미제침략군무력은 불안정을 《억제》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긴장을 격화시키고 우리 공화국과 다른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침략하기 위한 전쟁도구이다.

현정세는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같이 준비되여있을것을 요구하고있다.

아시아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미제의 위험한 기동타격무력의 전진배비책동을 주시하며 각성을 높이고있다.

현 사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타개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은 이미 밝혀졌다.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침략무력을 전진배비할 그 어떤 리유와 구실도 없다. 미국이 진심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이곳에 전진배비한 침략무력을 철수시켜야 할것이다.

김 종 손

새 해 공 동 사 설 을

여러 나라에서 연구보급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에 대한 토론회, 독보회가 남아프리카, 탄자니아, 나이제리아에서 10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남아프리카진보적사상연구소조, 주체사상연구소조 탄자니아전국조정위원회, 탄자니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아부쟈종합대학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남아프리카진보적사상연구소조 위원장 에디에 케카나는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올해공동사설의 제목만 보아도 사회주의조선이 인민을 얼마나 중시하는가 하는것을 다시한번 깊이 느낄수 있다.

이것이 곧 주체사상, 선군정치의 요구이다.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전략은 가장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전략이다.

지난해 조선에서의 거창한 대고조진군은 위대한 김정일각하의 작전과 의도, 구상에 따라 빛나는 결실을 가져왔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철의 진리가 실천에서 확증되였다.

우리는 조선인민이 올해의 방대한 과업을 반드시 실현하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할것이다.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안

우리 나라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 지지

기네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을 지지하여 24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 각서를 보내여왔다.

기네외무 및 해외동포사업성의 명의로 된 각서는 기네정부가 국제무대에서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대한 대외정책적리념에 충실하려는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에 전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중대제안은 국제적인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될것이라고 각서는 강조하였다.

* *

슬로벤스꼬공산당이 1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슬로벤스꼬공산당은 성명에서 남조선당국의 책동으로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의 정부, 정당, 단체들은 련합성명에서 남조선당국을 포함하여 정당, 단체들과의 폭넓은 대화를 가질데 대하여 밝혔다.

련합성명은 과거를 불문하고 누구와도 만날 용의를 표명하였으며 서로의 비방중상을 중지하고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것을 제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호소하였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조선당과 국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을 지지하여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련대성 아프리카지역위원회 서기장 에쓰. 엔. 쎄르왕가가 13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들의 련합성명은 참으로 시기적절하게 발표된 가장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안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구상에 조선반도처럼 정세가 긴장한 지역은 없다.

이것은 조미사이의 적대관계가 풀리지 않고 조선의 북남사이에 대결이 지속되고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

조선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진지한 념원으로부터 대범한 제안을 내놓았다.

세계의 모든 나라 정부들과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이 이에 전적인 련대성을 표시할것을 호소한다.

완강한 투쟁기풍은 조선인민의 혁명적기질

외국의 인사들이 강조

외국의 인사들은 축전과 축하편지들을 통하여 신심드높이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인민의 투쟁기풍에 대해 열렬한 찬사를 표시하였다.

스리랑카인민조선친선협회 서기장 더블유. 에이. 두민두와르다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인민은 난관앞에 굴할줄 모르는 용감하고 근면한 인민이다.

강의한 의지를 지닌 조선인민은 외세의 간섭과 압력책동을 단호히 물리치면서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왔다.

조선에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많다.

여기에는 조선인민의 헌신적인 노력이 깃들어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하여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조선의 사회주의가 영원히 승승장구하리라고 확신한다.

까자흐스딴 김정일동지명칭 주체사상연구보급협회 위원장 안드레이 그리쉰은 조선인민의 혁명적기세는 놀라움을 자아내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였다.

영웅적조선인민은 맞받아나가는 정신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여왔다.

오늘 조선인민은 여러 분야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이것은 자주성을 지향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에게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조선인민이 불패의 기상을 떨치며 더욱 힘차게 전진하기 바란다.

에스빠냐에 본부를 둔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 데 베노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완강한 투쟁기풍은 조선인민의 고유한 기질이다.

이런 인민이 있어 조선에서는 세계를 경탄시키는 성과들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구호를 들고 조선인민은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해 드센 공격전을 벌리고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이처럼 훌륭한 인민을 키우시였다.

그이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로 전체 인민을 새로운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키고계신다.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친 조선인민은 찬란한 미래를 앞당겨올것이다.

적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립장 천명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23일 한 상봉모임에서 연설하면서 적들에게 굴복하지 않을 자기 나라의 립장을 천명하였다.

그는 오만한 렬강들이 이란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을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산에 불과하다고 말하였다.

이란인민은 세계에서 적들의 억압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싸울것이며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하부구조개선사업을 다그칠데 대해 강조

브라질대통령 딜마 바나 로우쎄프가 20일 내각회의에서 한 발언에서 하부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을 다그칠데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올해에 정부는 하부구조개선을 위한 제2단계 계획수행에 착수하게 된다고 하면서 이 사업은 나라의 경제장성을 이룩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그는 정부가 앞으로 4년동안 하부구조를 발전시키는 사업에 보다 많은 자금을 돌릴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의 주장 배격

뛰르끼예대통령 아브둘라흐 굴이 24일 한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의 주장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그 무슨 보고서라는데서 지난해 저들이 감행한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공격이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한것과 관련하여 거기에는 국제적신빙성도 합법성도 없다고 비난하였다. 이스라엘당국은 국제법을 위해 아무것도 한일이 없다고 하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주장은 이와 관련한 외교적분쟁을 더 격화시키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남아프리카진보적사상연구소조 년차총회 진행

남아프리카진보적사상연구소조 년차총회가 21일에 진행되였다.

총회에서는 지난해사업이 총화되고 올해활동계획이 토의되였다. 총회는 소조가 올해에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100돐기념 남아프리카전국준비위원회와 적극 협력하여 연구토론회와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사업을 널리 조직함으로써 소조활동을 적극화하며 소조대렬을 더욱 확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지진

그루지야의 서부지역에서 19일 리히터척도로 5.3의 지진이 일어났다.

진앙은 꾸따이씨시로부터 서남쪽으로 31k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전염병피해

— 잠비아에서 콜레라가 계속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최근 이 나라 보건성은 올해에 들어와 5일현재까지 전국적으로 21명의 콜레라환자가 새로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1월이래 지금까지 등록된 환자수는 151명으로 늘어났다.

— 요르단에서 A(H1N1)형돌림감기에 의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11일 이 나라 보건성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신형독감환자수가 125명에 달하였으며 사망자수는 8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아랍추장국련방의 아부 다비

유엔안보리사회의 그릇된 태도를 비난

유엔주재 꾸바상임대표가 19일 중동정세에 관한 유엔안보리사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리사회의 그릇된 태도를 비난하였다. 그는 지난 2년동안 유엔안보리사회가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건설과 가자지대봉쇄책동에 계속 침묵을 지켜온데 대해 까밝히고 이 기간 이스라엘당국은 팔레스티나인들의 살림집들을 파괴하고 정착촌을 확장하는데 더욱 열을 올려왔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유엔안보리사회가 중동지역의 평화를 이룩하는데서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경영형편 악화, 실업자 증대

— 일본련쇄점협회는 24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주요소매업체들에서 판매량이 그 전해보다 2.6% 줄어들어 련속 22년째의 감소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경제침체로 주민들의 구매력이 계속 떨어지는것과 관련된다.

같은 날 전기통신업체인 케이디디아이회사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기업체에서 리윤이 1년전에 비해 4.7% 감소되였다고 발표하였다.

— 영국에서 계속되는 경제침체로 실업문제가 의연 심각하게 제기되고있다. 19일 영국중앙통계국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에 전국적으로 실업자수가 250만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이것은 그전 3개월동안에 비해 4만 9000명 더 늘어난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경제전망에 비관

이딸리아의 기업체들속에서 경제전망에 대해 비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전국의 중소기업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가 17일에 발표된데 의하면 조사에 참가한 66%이상의 기업체들이 올해에도 인플레가 증대되여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기 어려울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단평 눈감고 아웅한다

최근 일본이 미국과 주일미군의 환경오염문제와 관련한 첫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군전투기들의 연료루출 등에 의한 주일미군기지지역의 환경오염상태를 일본이 조사할수 있게 한다는것이 회담의 골자이다. 이런것을 두고 눈감고 아웅한다고 한다.

일본의 도처에 거미줄같이 널려있는 주일미군기지지역의 환경오염문제는 어제오늘에 와서 비로소 제기된것이 아니다.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후 미군이 일본땅에 둥지를 틀고앉은 그때부터 말밥에 올라왔다. 특히 주일미군의 75%가 도사리고있는 오끼나와에서는 수십년세월 미군전투기들에 의한 소음공해 등으로 론의가 분분하다.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가 제기된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오끼나와주민들을 비롯한 민심의 불같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후덴마미군기지이설문제해결을 질질 끄는 일본당국이 주민들의 피해를 《걱정》하여 주일미군기지지역의 오염상태를 조사하겠다느니 뭐니 하고 설레발치고있으니 가관이다. 이것이 도대체 납득이 가는 일인가.

발등에 떨어진 불도 끄지 못하는 일본이 그 주제에 주일미군기지지역의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한다 어쩐다 하고 너스레를 떠는것은 그들나름대로의 타산이 있어서이다. 일본당국은 이런 서툰 요술로 주일미군기지철폐를 요구하는 민심을 달래고 주일미군을 언제까지나 붙잡아두려 하고있다. 내외여론은 이것을 꿰뚫어보고 쓴웃음을 짓고있다.

배 금 희

고질적인 자살병

자살지옥으로 유명한 일본이 아직까지 그 오명을 벗지 못하고있다. 얼마전 일본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에서 지난 한해동안에 자살한 사람이 3만명을 훨씬 넘는다고 한다. 이로써 일본은 1998년이래 13년 련속 3만건이상의 자살기록을 세웠다. 이에 급해난 집권민주당이 《자살대책추진기획팀》을 설치하고 대책을 세운다 어쩐다 하고 새해 정초부터 부산을 피우고있다. 《자살대책추진기획팀》은 지난 12일에 첫 회의를 열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살자수를 3만명아래로 떨구기 위해 무엇이든지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누구도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믿지 않고있다.

일본에서 자살행위는 막을길이 없는 하나의 사회적풍조로 되고있다. 정객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로인으로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직위와 나이, 남녀에 구별없이 자살행위는 모든 사람들에게 류행병처럼 퍼져가고있다.

자살현상은 특히 청년들속에서 더욱 우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청년들의 대다수가 취업난 등으로 매일 자살충동을 느끼면서 산다고 한다. 자살방법도 《동반자살》, 《련쇄자살》 등 다양해지고있다. 일본에서는 취업난, 생활난, 가정파탄, 각종 질병 등으로 자살률이 해마다 증가하고있다. 특히 몇해전 미국에서 일어난 파국적인 금융위기와 경제위기의 여파로 지난해 크고작은 기업들이 파산당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로 전락되였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빈궁속에 허덕이며 죽지 못해 살아가고있다. 얼마전 일본에서는 일자리를 잃고 몇달동안 방황하던 한 젊은이가 로상에서 굶어죽는 참사가 빚어졌다. 앞날에 대한 포부와 희망을 잃고 비관과 우울증에 사로잡힌 청년들속에 돈 한푼 없이 길거리에서 굶어죽느니 차라리 제손으로 제 목숨을 끊는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수두룩하다.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제기되고있는 자살현상을 막는다고 하면서 일본당국이 《자살대책 100일계획》이요, 《자살예방교육》이요 뭐요 하고 떠들어대고있지만 자살자수는 나날이 늘어나고있다.

반인민적정책이 실시되고 온갖 사회악이 성행하며 불평등이 지배하는 일본사회에서 자살현상을 근절한다는것은 빈말공부이며 언제 가도 실현불가능한것이다. 일본에서 자살병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의 고질병이다.

본사기자 전 영 희

월간국제정세개관

대화와 협상, 단합과 협력은 국제적추세

대화와 협상, 단합과 협력의 방법으로 나라와 민족들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고 신뢰를 도모하여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것은 오늘 하나의 국제적추세로 되고있다. 이달에 국제무대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새해에 들어와 뛰르끼예와 그리스가 과거의 적대감과 선입견을 버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에게해분쟁을 끝장내고 두 나라 관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지난 7일 뛰르끼예수상은 두 나라가 에게해를 평화와 친선의 바다로 만들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이 성과를 거두고있다고 말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그리스수상은 두 나라가 협조를 위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강조하고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함께 노력한다면 쌍방사이의 분쟁문제를 능히 해결할수 있다고 말하였다. 뛰르끼예와 그리스는 오래전부터 에게해의 섬들을 놓고 분쟁을 벌려왔다. 이로하여 두 나라사이에는 불신과 대립이 조성되고 군사적충돌까지 일어나군 하였다. 그러던것이 이번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문제를 타결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이것은 무슨 문제든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능히 해결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국제사회에 보여주었다.

이달에 다른 나라들에서도 대화와 협상, 단합과 협조를 통하여 국가관계를 개선, 발전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벌어졌다.

지난 6일 에짚트와 마로끄가 정치적 및 전략적대화를 위한 공동기구를 설치할데 대한 량해각서에 조인하였다. 수리아와 아랍추장국련방은 경제적협조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란, 수리아 등 여러 나라 지도자들은 나라들사이의 대화와 협조공간을 실용성있게 활용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대화와 협상, 단합과 협력이 없이는 지역의 정치, 경제적문제들을 해결할수 없다고 하면서 지역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달에 국제무대에서 대화와 협력을 위한 움직임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것은 동북아시아지역 특히 조선반도이다.

력사적으로 동북아시아는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얽혀져있는것으로 하여 정세가 복잡한 지역으로 되여왔다. 랭전시기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동북아시아에서는 항시적으로 정세가 긴장하였다. 더우기 조선반도는 세계적으로 정세가 가장 첨예하고 전쟁위험이 제일 큰 지역으로 되고있다. 조선반도정세가 팽팽해지면 그것은 동북아시아지역은 물론 세계정세발전에도 부정적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부터 우리 공화국은 새해에 들어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원칙적립장을 밝히고 현실성있는 공명정대한 중대제안도 내놓았다.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의 새해공동사설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며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과 의지를 명백히 밝히였다.

지난 5일 우리 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들은 련합성명을 발표하여 북남당국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하여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도들을 허심탄회하게 론의할것을 제의하였다. 그후 우리 공화국은 북남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적문제들도 제기하였다. 이것은 대결은 무력충돌과 전쟁밖에 가져올것이 없으며 대화와 협상만이 현 난국을 타개할수 있는 유일한 출로라는 원칙적인 립장과 견해로부터 출발한 정당한 조치이다.

우리의 혁신적이고 선의적인 조치는 광범한 국제사회계의 전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의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해방일보》, 중앙TV방송, 로씨야의 이따르—따쓰통신, 엔떼웨방송, 꾸바의 쁘렌싸 라띠나통신, 미국의 AP통신, VOA방송, 영국의 로이터통신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대중보도수단들은 새해공동사설과 우리 공화국의 정부, 정당, 단체 련합성명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이것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립장과 제안에 대한 국제적지지와 련대성의 표시로 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중국에서도 나타났다. 지난 1일부터 중국—대만경제협력틀거리협정이 정식 발효되였다. 뒤이어 중국전략문화촉진회가 베이징에서 창립되였다. 지난 6일에는 중화전국대만동포련의회 리사회 제8기 제4차회의가 베이징에서 개막되였다. 이밖에도 중국에서는 대만해협량안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진행되였다. 이에 따라 중국본토에서 대만을 찾는 려행자수가 늘어나고 중국과 대만사이의 관계가 개선되고있다. 대화와 교류, 협력을 통해 량안의 평화적발전과 관계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중국본토와 대만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고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는 대화와 협상, 단합과 협조를 위한 움직임은 침략과 전쟁, 대결과 분쟁이 없는 평화롭고 안정된 세계에서 살려는 인류의 념원을 반영한것으로서 그것이 막을수 없는 시대적흐름으로 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제국주의자들을 비롯한 국제반동세력은 이러한 흐름을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이달에 그것을 가로막고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그들은 도처에서 침략무력을 증강하면서 대화와 협력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였으며 나라들사이에 쐐기를 박아 불신과 반목, 대립을 조장하고 지역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려고 획책하였다.

미국은 년초부터 핵항공모함 《칼빈손》호를 일본의 오끼나와에 끌어들이며 군사적광기를 부렸다. 지어 미국은 《칼빈손》호를 남조선에까지 들이밀어 화약내풍기는 전쟁연습을 벌리였다. 일본도 미국의 전쟁책동에 발맞추어 재침을 노린 불장난소동을 벌렸다. 일본 《자위대》는 이달 20일부터 《남부국경의 공동방위》의 미명하에 미군과 공동지휘참모훈련을 강행하고있다. 미국이 일본, 남조선과 야합하여 련이어 벌린 전쟁연습소동은 그들이 대화와 협상을 경시하고 힘의 정책강행을 중시하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달에 미국과 그의 지지비호를 받는 이스라엘의 반평화적이며 지배주의적인 책동으로 하여 중동지역의 대화분위기가 깨지고 정세는 더욱 악화되였다. 이스라엘은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과 팔레스티나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계단식으로 확대하였다. 지어 이스라엘은 유태인정착촌확장을 위해 동부꾸드스에 있는 팔레스티나인들의 호텔을 허물어버리는 망동을 부렸으며 무고한 팔레스티나인들을 살해하였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만행은 미국의 지지비호밑에 감행되였다. 대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의 범죄행위는 시대착오적인것으로서 국제사회계의 비난을 받았다.

이달의 정세흐름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대화와 협상, 단합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시대적흐름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는것이다. 또한 인류의 념원에 배치되게 힘의 정책, 지배주의책동에 매달리는 제국주의자들과 국제반동들은 세계적규탄과 고립을 면할수 없다는것이다. 이것이 이달의 국제정세의 주되는 총화이다.

본사기자 리 학 남

ㄱ-11021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